

# 중국공산당의 위기관리 정치: ‘코로나19’ 대응의 정치적 논리\*

서상민\*\*

## 목 차

- I. 서론
- II. 중국의 ‘코로나19’ 위기관리
- III. 시진핑 시기 ‘정치안보관’과 ‘코로나19’
- IV.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중국의 외교적 대응
- V. 결론

## 한글초록

본 논문은 강대국화 과정에 있는 중국은 예기치 않게 발생한 ‘코로나19’에 대한 정치적 대응의 내용과 의의를 파악하고자 했다. 특히 중국공산당 지도부가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의 국가적 위기관리 국면 보여준 대응정책과 방역메카니즘, 그리고 대응인력의 배치 등과 관련한 특징을 파악하고, 대외선전활동과 관련해 중국외교부 대변인들의 외신기자회견장에서 행한 발언을 분석하여, 중국공산당과 중국정부는 위기국면에서 어떤 메시지를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국제사회에 전달하고자 했는지를

\* 본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NRF-2019S1A6A302102737).

\*\*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HK연구교수

이른바 ‘토픽모델링’ 분석을 차용하여 분석하고자 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국공산당은 ‘코로나19’를 철저하게 ‘정치안보’ 차원에서 관리하였다. 중국공산당은 ‘정치안보’가 곧 ‘국가안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중국공산당 내 민생보건 부문의 관료와 전문가 보다는 ‘정법과 치안계통’의 관료와 전문가들이 위기대응의 전면에 나서 ‘정치안보’ 확보에 치중하였다. 이는 ‘코로나19’ 방역의 실질적 목적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간주한다.

해당기간 중국의 외교적 대응을 보면, ‘코로나19’ 발생 전에 비해 대외적 공격성이 강했다. 특히 2020년 3월 10일 시진핑 주석이 “코로나19 방역 성공”을 선언한 시점을 전후로 하여 중국외교부 대변인이 사용하는 단어는 전혀 달라졌는데, 3월 10일 이후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더욱 강경하고 공세적 언술을 구사하여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제기한 “코로나19 책임”에 대해 전면적 투쟁을 전개하는 최전선에 있었다. 중국외교부 ‘정례외신기자회견’ 자료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외교부는 지난 2월에서 4월까지 서방과 미국의 중국책임론, 중국관료주의, 언론 자유 침해 등 중국 사회주의 정치체제에 대한 비판에 대해 물리서지 않은 완고한 자세로 언술을 토픽을 구사했으며, 한편으로는 아프리카 국가 등 중국에 우호적인 국가들에 대한 대대적인 방역지원과 함께 중국의 관대함과 책임감을 선전하는 대외선전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관련 언술 토픽을 구사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고립을 피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었다.

### 주제어

코로나19, 중국공산당 대응, 시진핑 리더십, 중국공산당 위기관리, 중국공산당의 정치안보, 중국외교부 외신기자회견, 외교대변인 언술, 토픽 모델링분석

## I. 서론

21세기 두 번째 10년을 맞고 있는 지금 세계는 전대미문의 팬데믹(pandemic)을 경험하고 있다. 지난 세기 과학기술의 발전과 세계화와 정보화로 인해 인류의 삶은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르고 광범위하게 변화했다. 1980년대 신자유주의 열풍, 그리고 1990년 초 이후 냉전이 해체되면서 세계는 빠르게 하나의 시장과 하나의 공동체로 묶여 나갔다. 이른바 “세계화”(globalization)의 시대이다. 이후 세계화는 되돌릴 수 없는 추세로, 더 나아가 강력한 ‘이데올로기’로 자리잡아 왔다. ‘생존을 위해 국가와 개인은 세계화에 어떻게 적응해야 할 것인가’하는 것이 개인이 당면한 최대의 문제상황이었다(Friedman, 2000: 3-17). 이렇듯 인류가 일으킨 높고 위험한 파도에 인류가 몸을 맡기고 파도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이다. “세계화에 잘 적응한다면 발전하고 생존할 것이나 그렇지 못한다면 분명 도태하고 추락할 것이다”와 같은 위협과 같은 ‘담론’을 인류는 믿을 수밖에 없다. 자신이 사는 지역을 불문하고, 자신이 속한 사회계층을 막론하고 이러한 담론과 이념은 빠르게 전파되었다.

한편 21세기 새로운 인류의 전형(典型)이라고 하는 “글로벌 노마드(Global Nomad)”(Greg Richards and Julie Wilson, 2004: 4-5),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Reichenberger, 2018: 364-366)와 같은 말들이 생겨나면서 인류는 자신의 현재적 ‘삶의 방식’이 과연 적합한지,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지를 또 한 번 반추하게 되었다. “이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시대에 잘 적응할 수 있는가? 온-오프라인에서 시공간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일하고 생활한다고 하는 21세기형 ‘새로운 인류’가 될 수 있는가?” 그러나 이러한 세계화의 변화와 함께 인류는 심각한 안보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자신의 생존은 세계화라는 파도 위에서

위협받고 있지만,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영역은 대단히 한정적이라는 불안감이 만연해 있다.

세계화 시대 개인들이 우려하는 만큼이나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는데 있어 허약함을 드러내고 있다. 전통적 “국가안보관” 만으로 국경이 낮아지는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가? 국경을 넘나들며 자유롭게 활동하는 국민들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가? 전통적인 “국가안보”는 이미 낡은 시대의 개념처럼 전략하였고(전웅, 2004: 25-49), 세계화의 시대에는 국경을 뛰어넘어 세계화의 파도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파도를 타는 인류의 안전에 대한 걱정이 많아지게 되었다. 국가안보 보다는 개인의 삶에 많은 관심을 두는 안보이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심심치 않게 제기되기도 한다.<sup>1)</sup> 물론 개인들은 국가가 개인에 대한 안보에 당연하게 관심을 두어야 할 의무로써 간주했을지 모르지만, 안보정책결정자들은 군사적 위협을 포함하여 경제위기, 전염병 확산, 다국적 환경문제, 자연재해 등과 다양한 형식의 국가적 위기를 포괄하는 안보 개념에 이른바 “포괄안보”(comprehensive security) 개념을 제기하면서 개인의 안전보장을 포함하는 선에서 강력한 국가중심적 문제해결을 선호하고 있다.<sup>2)</sup> 여기에는 개인의 자유와 국가기구의 통제 간 앞으로도 잘 풀릴 것 같지 않은 고전적인 자유주의와 현실주의의 논쟁이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국가위기 시 경제생태환경은 여전히 ‘국가’라는 정책적, 전략적 내에서만 작동하고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sup>3)</sup>

1) 이렇듯 국제사회가 인간중심의 안보 즉 "인간안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냉전이 해체된 후인 1994년부터이다. 자세한 내용은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1994) 참고.

2) 포괄안보(comprehensive security) 개념은 1970년대 등장하였으나, 본격적으로 현실화된 것은 탈냉전 이후라고 할 수 있다.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이원우(2011: 44-46) 참고.

한편으로 '안보'는 점점 다양화와 포괄화 되어 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과정에서 목격하듯 현재 우리는 개인과 국가의 안보문제는 단지 일국적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문제가 발생하는 영역은 지구적 차원인데, 이를 해결해야 하는 주체는 결국 일국(一國) 단위일 수밖에 없는 불일치가 존재한다. 안보가 포괄하는 영역이 다양화되고 커버해야 할 공간적 범위가 넓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법-제도적 그리고 조직적 시스템은 세계화 훨씬 이전 거의 400여년 동안 지속되어 온 '국가-주권 시스템'(State-Sovereignty System)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이용옥, 2016: 169).<sup>4)</sup> 지난 40여년 동안 진행되어 온 세계화에 대한 성찰과 세계화 시대 인간의 안보 문제와 관련된 지구적 대응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이 본 논문의 주제는 아니다. 다만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향후 인류의 생존과 안

3)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여러 글로벌기업에 대해 중국에 대한 제재에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렇듯 미국정부 초차 민간기업에 대한 이러한 요구를 통해 경쟁상대국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최근 미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화웨이 반도체 조달망에 대한 제한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양국 간 수면 아래 잠복해 있던 기술패권경쟁을 재점화한 도화선이 되고 있는데, 이로 인한 미중 간의 정치적, 경제적 갈등이 심화 되어 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미처 종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나 중국공산당 지도부 공히 상대국에 대한 공격수준을 점점 높여가고 있다. 이는 세계화라는 인류생존의 생태환경 속에서 다 같이 지구공동체의 문제해결을 위해 가장 많이 노력해야 할 최대 경제대국 간에, 자국 이익우선 정책이 인류전체에 얼마나 큰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US mulls cutting China's Huawei off from global chip suppliers like Taiwan's TSMC" *South China Morning Post* (<https://www.scmp.com/>, 검색일: 2020.05.18.) 참고.

4) 이용옥(2016: 169)은 '국가-주권 시스템'은 지구공동체의 공존과 번영의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이기적 혹은 경쟁적 국가이익을 규범화하는 방식으로 전 지구공동체의 공동이익 달성을 방해는 방해물로 간주하고 있다. 이용옥의 연구는 '코로나19' 지구적 차원의 극복이라는 당위성과 국가-주권시스템 차원에서의 이기적 국가이익 사이에 간격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전을 보장하는 데 있어 현재와 같은 국제사회, 국가 간 거버넌스는 분명 문제가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먼저 지적해 놓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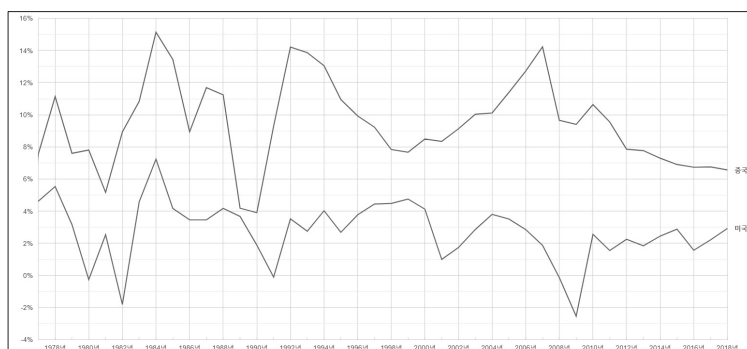
본 논문에서 필자가 논하고자 하는 바는 ‘코로나19’를 대응하면서 취한 중국공산당과 중국정치지도자들이 국내외적 위기에 대한 정치적 대응의 내용과 그 의미이다. 정치적 대응이라는 측면은 시진핑 정권의 위기관리 혹은 위기대응이라는 정책적 능력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아울러 시진핑 정권을 지탱하고 있는 정치권력의 안정화와 관련한 리더십을 평가하는 작업일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정권의 정치적 위기는 권력투쟁과 관련된 장기적인 잠재적 원인이 표면 위로 부상하면서 진행된다. 어느 부위에서 어떤 형식으로 정치적 위기가 발생할 것인지는 예측하기 힘들다. 치밀한 계획 하에 정확한 시점과 지점에서 발출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정치적 갈등이 지속적으로 축적되는 상황 하에서 우연한 계기를 통해 폭발적으로 전개되는 사례도 많다. ‘코로나19’는 물론 후자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문제는 당시 시진핑 정권의 정치적 위기가 폭발할 수 있을 만큼 축적되어 있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예상치 않게 돌발적으로 출현한 정권의 안정을 위협하는 정치적 위기를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정치권력의 내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었는가를 가늠하는 것이다.

## II. 중국의 ‘코로나19’ 위기관리

중국정치 내의 엘리트 간 정치적 다이내믹스를 외부에서 파악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파벌투쟁을 중심으로 중국정치를 분석해 온 대부분의 연구들은 특정 시점에서의 파벌 간의 권력투쟁 과정

의 결과가 공식적으로 드러나고 승자가 확인된 이후에서야 비로소 ‘서술’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례들이 반복적으로 관찰되어 권력정치와 관련된 일정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면 현재적 권력정치를 유추하고 추론하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의 가장 큰 한계는 그 실체적 진실을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도전했고, 그 도전에 대해 누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는 정권 내 권력정치 과정의 실재 행위자들 소수만이 알 수 있을 뿐이다. 나머지 사람들은 일부분만을,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해석하고 예측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림 1〉 중국과 미국의 1977~2018년 GDP 성장률



자료: World Bank(<https://data.worldbank.org>)

그렇다면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위기는 현 시진핑 정권 내 정치적 위기를 분출시킬 수 있는 도화선이 될 수 있었는가? 필자는 충분히 도화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 중국경제의 성장률은 〈그림 1〉에서와 같이 시진핑이 집권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과연 우연일까? 물론 신장타이(新常态)와 같은 중국경제 구조적, 내적 요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미중 간의 무역갈등이나 시

진핑 집권 이후 강화되고 있는 ‘사회주의’ 이념의 강화와 같은 경제적 요인 역시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다른 한편 정치적으로 시진핑 집권 이후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던 반부패운동을 통하여 부패분자 처리를 통한 민심이반을 막고 통치정당성을 회복하는 본래의 취지와 함께 반대파에 대한 정치적 압박과 처분을 통해 자신의 정치권력 기반을 강화하고, 군권까지 장악하여 이름과 실재가 부합되는 당의 핵심 지위를 확보하려는 정치적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였다(이지용, 2019 : 137-165; 이상만·김동찬, 2018, : 183-216; 최지영, 2016: 125-150).

경제적 측면에서의 저성장 지속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는 중공산당과 관료조직 내의 반부패를 매개로 한 압박으로 인해 조직적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고,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혁개방 이래 추진된 권력 분산과 권한 하방(下方)의 제도화가 시진핑 시기 당 중앙 내 각종 영도소조와 위원회 등 권한과 책임이 분리된 기형적 기구 설치로 인해 정책의 입안과 집행의 안정성 약화시켰다. 특히 시진핑 집권 후 사회관리와 사회안정유지(维稳)를 실현하기 위한 언론, 사상, 종교 등의 사적 영역의 물리적,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state apparatus)의 통제강화는 '동의'에 기초한 통치라기보다는 '억압'을 앞세워 개인권력집중과 종신집권을 목표로 하고있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 지식인들의 비판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许章润, 2018). 대외적으로 2019년 말 '중미무역전쟁' 1라운드에서 좋지 못한 성적을 받아 놓고 있었으며, 홍콩사태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채 지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만 총통선거에서 차잉원(蔡英文)의 민진당의 압도적으로 승리함에 따라, 양안관계의 전망 또한 매우 불확실한 상황으로 접어들어 가고 있었다. 이러한 대내외적 어려운 상황 하에서 2019년 말 발생하고 2020년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한 '코로나19'는 인명과 관련된 사안으로써 14억 중국인민



의 민심과 9000여만 당심을 좌우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중대한 위기였다. 시진핑 정권을 집권 후 최대의 정치적 위기가 초래될 수도 있는 국면이었다.

중국의 위기대응능력은 이미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 잘 드러났다. 특히 가장 최근인 2008년 위기에서는 미국과 유럽시장의 타격으로 인해 중국의 대외수출이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장적 통화정책과 6.83위안 수준환율 유지함으로써 경제적 위기를 돌파하였다(조종화 외, 2010). 그러나 시진핑 시기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은 다르다. 외부의 충격이나 외부로부터 도래한 위기가 아닌 중국 내에서 발생한 질병이 반대로 전 세계에 확산되면서 전 세계로부터 “중국의 초기 대응실패론”, “중국 정보은폐론”, “중국배상론” 등과 같은 국제사회의 불만과 원망에 시달리고 있다. 물론 각국이 중국을 희생양 삼아 국민들의 분노를 외부로 분출하도록 유도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코로나19’의 확산차단에 대한 중국정부와 중국공산당의 초기대응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높지 못하다(Rosenberger, 2020). 정책학에서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는 “위기를 통제하고 조절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Williams, 1976: 27-28).<sup>5)</sup> 그리고 위기관리를 세 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먼저 “위기를 판단하고 경고하는 ‘위기 전 단계’”(Pre-Crisis Stage), 둘째, “위기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위기대응 단계”(Crisis Response Stage), 셋째, “위기가 지난 간 후 정상으로 되돌리는 단계”(Post-Crisis Stage) 등이다.<sup>6)</sup>

5) 윌리엄스의 “위기관리”에 대한 정의는 간단하나 그가 말하는 위기관리는 국제적 위기 및 안보상의 위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엄밀히 전염병 확산 등과 같은 국내적 사회경제적 위기와는 같을 수 없다. 다만 위기의 종류와 성격은 다르지만 비상상황이라는 점에서 위기의 ‘관리’ 측면을 강조하고 있기에 그의 정의를 여기에 인용한다.

6) 위기대응의 단계별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Posey and Wigmore,

위기관리 세 단계에 따라 중국의 ‘코로나19’ 대응과정을 필자 나름대로 적용하여 보았다(《人民网》, 2020. 2. 3). 먼저 제1단계 “전(前) 위기 단계”라고 한다면, 2019년 12월 10일, 최초의 감염사례가 보고되고, 27일 우한(武汉) 보건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사례를 확인한 시점부터 12월 30일 우한 중심병원 응급과 주임인 아이펀(艾芬)이 위챗(wechat)을 통해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해 언급한다. 의사 리원량(李文良)이 이를 신종 SARS 같다고 위챗에 올려 세상에 알려지게 된 후, 우한 보건당국은 우한 중심병원을 ‘원인불명 폐렴’조사 병원으로 지정하고 관련 정보를 보고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리고 다음날인 12월 31일 27건의 사례를 확인하고 바이러스 전파와 관련된 시장을 닫고 WHO 중국사무소에 이를 통보한 시점까지를 “전 위기 단계”(pre-crisis stage)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위기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보다는 위기를 파악하고 그 엄중함을 경고하고 알리는 단계이다.<sup>7)</sup>

두 번째 단계 위기에 대한 대응단계는 첫 단계가 끝난 2020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어야 했으나, 우한시 공안국(公安局)은 우한시중심병원(武汉市中心医院) 의사 8명을 연행했고, 후베이성 보건위가 ‘코로나19’를 유사 SARS바이러스로 규정하고 ‘코로나19’ 관련 모든 실험을 중단과 함께 관련 샘플을 없앨 것을 지시하였다. 이로 인해 근 1주일 동안 위기대응이 진행되지 않고 정체되었으나, 1월 7일 시진핑 주석이 대응지시 이후 마침내 위기관리 제2단계가 시작되었다. 1월 9일에 ‘코

---

“Crisis Management”, *Whatis.com* (검색일: 2020.05.08.).

7) 초기 대응과정과 관련한 세부적 활동일정은 중국매체를 통해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미국 매체인 *Wall Street Journal*과 *Washington Post* 등의 기사를 참고하여 초기 대응일지를 재구성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관련하여 Allen-Ebrahimian, “Timeline: The early days of China's coronavirus outbreak and cover-up” *AXIOS* (검색일: 2020.05.09.) 참고.

로나19’의 계남지도가 만들어졌다. 같은 달 13일, 중국 이외 태국에서 첫 감염사례가 보고되었다. 그리고 1월 14일, WHO가 사람과 사람의 전파에 대한 뚜렷한 증거 없다고 한 중국당국의 의견을 발표한 후 15일에 우한에서 미국으로 들어 온 중국인의 첫 사례 발견되었다. 1월 19일, 베이징에서 역학조사관을 우한에 파견한 후 다음날인 20일에 한국에서 첫 감염사례가 보고되었고, 같은 날 종난산(钟南山)이 사람 간 감염될 수 있다고 발표한 이후인 21일 《인민일보(人民日报)》는 ‘코로나19’를 공식 언급하면서 시진핑 주석의 방역 지시를 보도하였다. 1월 23일 우한 및 3개 도시에 대한 봉쇄가 이루어졌나, 1월 24~30 춘제(春节) 연휴기간에 대규모 인구가동이 있었다. 이후 폭발적인 확산과정을 거친 후 3월 10일 시진핑 주석이 후베이성을 방문하여 의료진을 위문하고 방역의 성공을 선언하면서 대응단계인 제2단계가 끝나게 된다.

마지막 단계인 제3단계는 ‘위기 후 단계’(post-crisis stage)인데 일터 복귀와 생산재개 등 “정상적”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위한 위기관리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3월 13일 리커창 총리의 경제사회발전 및 시장 정상화 추진을 제기하였고 20일에는 취업안정화를 위한 관련 기관과의 화상회의 개최 및 생활물자공급과 일터복귀(复工), 생산재개(复产) 등의 업무 등을 시찰하면서 본격적인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그리고 약 한 달 후인 4월 22일 시진핑이 직접 산시성(陕西省)을 방문하여 일터복귀와 생산재개 및 경제사회 회복상황 시찰하고, 4월 29일 2020년도 양회 개최 시기를 결정됨으로써 ‘코로나19’ 발생 이후 잠정 중단되었던 공식적 정치행사 일정까지 다시 소화하게 되었다. 이로써 ‘위기 후 단계’가 대체로 마무리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종 단계가 끝나는 종식선언은 여전히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공공위생(公共衛生) 상의 위기관리는 전반적으로 위와 같은 단계를 거쳐 관리되었다. 그러나 위에서도 언급했듯 이번 ‘코로나19’ 위기 발생 시, 경고의 제1단계에서 직접적인 대응단계인 제2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몇 가지 문제가 관찰된다. 첫째,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의 위기에 대한 경고가 지방 보건당국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으며, 둘째, 발병지인 우한과 허베이 정부의 위기 심각성 인식과 중앙인 국무원 및 중공 중앙 위기대응기구 간의 심각성 인식 타이밍의 일치하지 않았아 전면적 대응이 늦어진 점, 그리고 셋째, 중국과 국제사회 간의 “위기소통”(crisis communication)과 정보교류가 미흡했던 점 등은 세계적 확산과정에서 국제사회가 중국에 대하여 책임을 제기할 수 있는 소지를 중국 스스로 조성했다는 것을 부정하기 힘들다.

그렇다면 이러한 초기 대응의 문제는 왜 발생하는가? 중국의 당시 정치사회적 환경에 한정하여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필자는 앞에서 위기관리를 “위기를 통제하고 조절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해야만 중국의 초기 대응이 원활하지 못했던 원인에 접근할 수 있을 듯하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과연 누가, 어느 단계에서 위기라고 인식하고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시작했는가 하는 문제이다. 물론 위기 인식은 위기의 대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누구에게 어떤 위기인가?”라는 인식은 관련 행위자마다 다를 수 있다. 중국인민과 지방정부, 중국 공산당 등 위기의 수준과 위기의 대상을 각기 달리 생각할 수도 있다. 이 위기가 팬데믹적 위기인지? 일국단위의 중국만의 위기인지? 단순히 인민의 보건 관련 위기인지? 아니면 폭발적 전염으로 인한 사회불안에 따른 정치적 위기인지? 중국공산당의 통치와 관련된 민심의 위기인지? 각 행위자마다 서로 다른 위기인식과 위기수준이 교차하

면서 제1단계 위기대응시기를 지나게 된다. 그리고 본격적인 위기관리의 제2단계에 들어서면 위기에 대한 인식과 위기 엄중성이 하나로 통일되고 이를 관리할 주체가 명확해진다. ‘코로나19’의 대응과정을 봤을 때, ‘코로나19’를 자신의 관련된 위기로 인식하고 이 위기로 인해 자신이 가장 많은 정치적 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고 생각한 주체인 중국공산당이 가장 전면에 나서 위기를 관리해 왔음을 알 수 있다.

### III. 시진핑 시기 ‘정치안보관’ 과 ‘코로나19’

#### 1. “코로나19” 대응의 ‘정치안보’ 관련 의미

‘코로나19’를 위기로 인식한 중국공산당의 위기관리를 위한 조직적 대응은 이를 통일적으로 관리할 영도소조를 중앙에 설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중국공산당의 이러한 조치는 시진핑 시기 중국의 ‘안보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른바 “총체적 안보관”(总体国家安全观)으로 불리는 시진핑 시기 중국의 안보관은 전통적 안보와 비전통적 안보를 포괄할 뿐만 아니라, 21세기 변화하고 있는 안보환경 하에서 커져 가는 중국의 국가이익을 지키기 위한 전면적인 그리고 안보관이라고 할 수 있다.<sup>8)</sup> 2014년 4월, 중앙국가안전위원회(中央国家安全委员会) 제1차 회의에서 제시한 “총체적 안보관”은 안전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는 “우환의식”(忧患意识)으로 시작하고 있다(习近平, 2014).<sup>9)</sup> 이

8) 중국에서는 “인간안보”(human security)라는 개념을 안보관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인간안보”는 개인의 보편적 ‘인권’과 관련된 인식에 근거하기 때문에 “인민안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본래의 “인간안보”를 내용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9) 중국공산당 지도부의 ‘우환의식’은 중국공산당 통치의 정당성 약화와 밀접

는 “총체적 안보관”을 제시하게 된 배경에 대한 시진핑의 발언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중국의 안보가 갖는 내포와 외연이 어느 때 보다 풍부하게 해석될 수 있고, 시간과 공간 영역에서 넓게 포괄할 수 있으며, 안보를 둘러싼 내외적 요소들이 어느 때 보다 복잡하기에 새로운 “총체적 안보관”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sup>10)</sup>

이날 시진핑의 연설 중 “정치안보를 근본으로 삼는다(以政治安全为根本)”라는 대목이 있다(习近平, 2014). 이는 시진핑 ‘총체적 안보관’의 핵심 담론이라고 할 수 있다(李大光, 2016: 13-15). 이에 앞서 “인민안보’(人民安全)를 목표로 한다”라는 선언이 있기 하지만 중국공산당의 안보관의 핵심은 역시 ‘정치안보’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는 중국공산당이 국가안보가 곧 ‘정치안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언술이기 때문이다.<sup>11)</sup> 국가안보는 당-국가체제를 수호하고, 중국공산당의 통치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당에 의한 안정적 통제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사회불안성의 해소가 ‘사회안보’라고 한다면 중국공산당의 통치력과 체제 약화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적 불안요소로부터 중국공산당政治主体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정치안보’인 것

---

하게 관련되어 있다. 시진핑 정권이 특별히 강조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이른바 중국공산당의 “底线思维(bottom-line thinking)”은 집권 환경의 불안정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底线思维와 관련해서는 周亚东(2017 : 23-26) 참고.

10) 원문은 다음과 같다. “当前我国国家安全内涵和外延比历史上任何时候都要丰富, 时空领域比历史上任何时候都要宽广, 内外因素比历史上任何时候都要复杂, 必须坚持总体国家安全观”. ‘코로나19’ 발생 이전 2011년 원저우 철도추돌 사고, 2015년 톈진폭발사고 후 중국은 국가적 재난관리 즉 응급관리 체계 정비 등이 필요하며, 이를 ‘총체적 국가안보관’의 안보관리체계 속에서 단일 지도체계 하 종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고 한다(张海波, 2016 : 126-132).

11) 중국에서 ‘정치안보’의 이미지는 정치의식, 정치활동, 정치내용 등에 미치는 내외의 위협요소로부터 정치의 주체를 보호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다.

시진핑 시기 ‘총체적 안보관’의 출현은 안보환경의 국내외적 변화를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관련 종합적 체계를 완비하고 강화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불안정 요소로 규정되는 것 중 국외보다는 국내 요소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sup>12)</sup> 달리 말해 국내적 요인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정성과 그 결과 악화될 수 있는 정치적 불안을 대비한다는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 이후 시진핑 정권이 기존의 ‘총체적 안보관’이 포괄하고 있는 11개의 안보대상영역에 ‘생물안보’(바이오안보(Bio security))를 추가함으로써 안보대상영역을 확대한 이유는

- 
- 12) 시진핑의 “총체적 안전관”의 등장배경과 관련하여 최근 중국에서의 흥미로운 연구가 제출되었는데, 중국의 국제관계, 안보 전문가의 연구 경향을 분석한 결과 연구로써 이에 따르면 시진핑의 “총체적 안전관”이 국제적 안보환경의 변화로 인해 등장했다고 보는 연구보다 ‘국내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근소하기는 하지만 더 많았다. 중국인민대학의 장진하이(张金海) 등은 2014-2019년 동안 ‘총체적 안전관’과 관련된 285편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34편의 논문이 ‘국내 안보추세’를, 31편의 논문이 ‘국제 안보추세’를 시진핑의 총체적 안전관의 배경으로 지적하였다. 국내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안보관의 정립이 필요했다는 지적은 연구 주제에 대한 분석을 보면 더 뚜렷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 연구의 주제로 “문화안보”(文化安全)를 다루고 있는 논문은 전체 분석대상 논문의 25%인 70편으로 조사되었다. 연구자들은 “문화안보”에 대한 연구가 증가한 이유를 ‘신념체계’(信仰价值体系)가 없는 국가와 민족이 가장 불안정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사회안보(社会安全), 정치안보(政治安全) 등의 전통적 국가안보 요소의 뒤를 이어 중국 학계에서 많이 연구되고 있는 ‘총체적 안보관’ 관련 연구주제는 ‘인터넷안보’(网络安全)와 ‘해외이익안보’(海外利益安全) 등으로 나타났다. 중국 학자들은 SNS의 보편적 사용에 따른 “이념과 담론” 형성이 중요한 안보 요소로 보고 있으며, “일대일로창의” 등으로 인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와 세계화 심화는 중국국민의 해외자산과 이익의 보호를 중요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점을 연구주제를 통해 지적하고 있다(张金海·马振超·朱旭东·丁姿, 2020: 3-4).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정치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习近平, 2020).

국가에 의해 모든 것이 관리되고 통제하고 있는 이른바 ‘당-국가 일체화 사회’인 중국에서 모든 문제는 중국공산당과 관련 정치문제이며, 중국공산당 통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위협이 되는 이슈와 사안은 모두 ‘정치안보’와 관련되게 된다(Shambaugh, 2013: 59). 아주 작은 국내 사안에서부터 지구적 사안에 이르기까지, 중국 내 사회적 요인에서부터 군사적 요인에 이르기까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정치의 문제’로 귀착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는 시작단계부터 ‘정치안보’와 관련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 단 확산의 규모와 범위 그리고 그것이 미치는 영향에 따라 지방단위에서 제한된 대응과 제한된 정치적 해결로 끝낼 사안인가 그렇지 않다면 중앙수준에서 중앙의 ‘정치문제’로 총체적, 국가적 대응으로 수준을 높일 것인가의 문제였는데, 그것 역시 중국공산당만이 정치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행정이나 보건의 문제가 아닌 정치문제이기 때문이고, 중국에서 정치문제를 관리하는 것은 중국공산당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코로나19’의 대응은 시진핑의 ‘총체적 안보관’ 차원에서 본다면 정치적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하고 해결되어야 할 ‘정치안보’와 관련된 매우 무거운 행위이며, 이는 중국공산당의 ‘정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일 수 밖에 없다.

‘코로나19’를 ‘왜 ‘정치안보’ 문제로 해석하려고 하느냐?’에 대한 대답은 중국공산당 학습자료에 따른 ‘정치안보’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지침을 보면 분명하게 드러난다. 《求是网》에 소개된 ‘정치안보’ 관련 당원학습자료에 따르면, “‘정치안보’는 당과 국가안보의 생명선(生命线)이다”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먼저 견고한 방벽(铜墙铁壁)을 구축하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과



정보 그리고 인적 정보망을 동원하여 ‘정치안보’에 위협이 되는 요소를 땀아상태에서 소멸시키거나, 초기단계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정치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중국공산당원의 구체적인 실천행동으로 첫째, 위협적인 요소에 대한 철저한 조사, 둘째, 사이버 보안강화 및 양호한 사이버 생태 구축, 셋째, 위협요소의 확산방지, 넷째, 불순세력(黑恶势力)의 정치분야 침투를 막아 당의 집권기반 약화 방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郭瑞民, 2019). ‘코로나19’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대응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러한 ‘정치적 안전확보’를 위한 지침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공산당이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할 때까지의 과정은 우한과 허베이에서 바이러스 확산이 이미 상당한 정도 이루어진 이후에 진행되었는데 ‘코로나19’ 확산방지과 방역에 중점을 둔 직접적인 방역상의 조치라기 보다는 ‘코로나19’ 그 자체가 ‘정치안보’로 전화되어 정치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소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공산당 중앙의 초기 결정을 보면 중국공산당 중앙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12월 10일에 첫 감염사례가 보고되었고, 12월 27일 우한시 보건당국이 새로운 바이러스에 의한 27명의 감염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 후 거의 한 달이 경과 한 1월 25일에야 중국공산당 중앙은 리커창(李克强) 총리를 조장으로 하는 ‘중앙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대응공작영도소조(中央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疫情工作领导小组, 이하 中央应对疫情工作领导小组)’가 구성하였다(《人民网》, 2020. 2. 3). 중앙 전염병대응영도소조의 구성 이전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은 지방 수준에서 이루어졌는데, 우한시 서기 마귀창(马国强), 우한시 시장 저우셴왕(周先旺)을 중심으로 하여 ‘신종코로나바이러스방역지휘부(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指挥部)’가 구성되었다. 그리고 나서 1월 23일 우한시에

대한 봉쇄결정이 이루어졌으나 초기방역에 실패하여 통제불능상태에 빠지게 되었다.<sup>13)</sup> 초기 대응에 실패한 원인 무엇이었는지는 저우셴왕(周先旺) 우한시장의 1월 27일 《중양(CC)TV》와의 인터뷰를 통해 추정 이 가능하는데, 먼저 그는 《전염병방지법(传染病防治法)》에 맞게 적절하게 대응했다고 하면서 “지방정부로써 나는 정보와 권한을 얻은 이후에야 (전염병 관련 사실을) 공개할 수 있었다(作为地方政府,我获得信息,授权之后才能披露)”라고 한 바 있다. 이미 사태의 심각성을 중양에 보고하였으나 중양으로부터의 대응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못했으며 “1월 20일 국무원 상무회의 개최 이후야 비로소 우리는 방역업무의 동력이 생겼다”라고 말한 바 있다(《BBC中文》, 2020. 1. 28).

그러나 중양의 설명은 다르다. 중국공산당이 출간하는 저널인 《求是》는 시진핑 주석이 2월 3일 정치국상무위원회 회의에서 한 연설을 2월 15일에 발간된 잡지에 게재했다. 저우셴왕 시장의 인터뷰가 있고 난 후 18일 만에 시진핑 주석의 알려지지 않았던 행보가 밝혀진 것이다. 중국공산당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인 시진핑은 이 글 맨 첫 머리에서 자신이 직접 지난 1월 7일 중국공산당 중양 정치국상무회의에서 ‘코로나19’의 방역업무와 관련해 ‘요구(要求)’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求是》, 2020. 2. 15). 이 연설문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우한시 저우셴왕은 중국공산당 총서기인 시진핑의 요구를 무시하고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소홀히 한 것이 된다. 이와 같은 사례는 중국 관계에서 쉽게 관찰되지는 않는다.

13) 우한시장 저우셴왕은 1월 26일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한의 상주인구가 1,100만 명, 우한 호구를 가지고 있는 인구는 900만명인데, 춘제와 전염병으로 인해 봉쇄 이전 이미 500만 명이 우한을 떠났다”고 한 바 있다(《中国新闻网》, 2020. 01. 27).

## 2. 〈중앙 전염병대응공작 영도소조〉 기구로 본 대응 특징

중앙차원의 대응기구로서 2020년 1월 25일 구성된 〈중앙 전염병대응공작 영도소조〉는 중앙정치국상무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되었다. ‘코로나19’에 대한 통일적 지도와 지휘를 중국공산당 중앙 차원에서 직접 맡게되었다. ‘전염병대응공작 영도소조’의 조장은 리커창 총리가 맡았고 부조장에는 왕후닝(王沪宁), 조원으로는 덩쉐상(丁薛祥), 쑨춘란(孙春兰), 황쿤밍(黄坤明), 차이치(蔡奇), 왕이(王毅), 샤오제(肖捷), 자오커즈(赵克志) 등으로 구성하고 그 다음날인 1월 26일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中国政府网》, 2020. 1. 26).

〈그림 2〉 ‘코로나19’ 대응체계



출처: 서울경제(2020.02.18)

영도소조의 구성 상을 특징 살펴보면, 첫째, 시진핑 주석이 직접 조장을 맡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과거 시진핑 주석은 중요한 영도소조의 조장을 직접 맡아왔다. 예를 들어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중앙외사안전영도소조〉, 〈중앙대만공작영도소조〉, 〈중앙인터넷안전

정보화소조), 〈중앙군사위원회 국방군대개혁개혁심화영도소조〉, 〈중앙재경영도소조〉 등이 그것이다. 국내 경제영역은 물론이거니와 외무, 군사, 양안관계, 정보화 등 거의 전 분야를 직접 관리하고 통제하는 위치에 있었다. 이를 두고 “만기친람(万机亲览)”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으나, “당에 의한 통일적 지도”를 강조하고 있는 시진핑 정권은 국정운영과 관련 중국 국민에게 중국공산당이 직접 책임지겠다는 의미이었기 때문에, 권력행사로 생긴 정치적 결과에 책임을 지는 이른바 “책임정치”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굳이 피해 갈 필요가 없었던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해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서지 않았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 여러 시각이 있으나(Mattingly et. al, 2020). 이 문제와 관련해 지금 당장 속단하기 보다는 향후 학계에서 진행될 연구와 논쟁을 살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Dotson, 2020: 1-9). 한편 토니 사이치(Saich, 2020)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 교수의 초기 대응 과정에서 시진핑에 대한 논평은 참고가 될 만하다. 그는 시진핑 주석이 누구보다 ‘코로나19’가 중국공산당과 자신에 미칠 영향에 대해 그리고 정권안정과 관련한 심각성을 잘 알고 있었고, 이를 행정적, 정책적 차원에서가 아닌 정치적 차원에서 접근해 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둘째, 시진핑 주석이 직접 영도소조의 조장을 맡지 않은 대신에 ‘코로나19’와 관련된 대응을 시진핑 자신이 직접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표명했다. 시진핑 주석은 〈중앙 전염병대응영도소조〉가 출범한 한 1월 28일 중국을 방문한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Tedros Adhanom Ghebreyesus) WHO 사무총장에게 “내가 직접 지휘하고 배치하고 있다(我一直是在亲自指挥亲自部署)”라고 자신이 직접 챙기고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中国新闻网》, 2020. 1. 28). 이는 비록 영도소조 조장을 맡지는 않았으나 이 국면에서 최종적인 결정은 자신이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자신이 최종적인 책임을 질 것이라고 한 것이나 다름없다.

2020년 1월 28일 신화사(新华社)는 시진핑 주석의 이 발언을 수정하여 발표하였다. 수정한 원고에 의하면, 시진핑 주석은 춘제(春节) 때 중공중앙정치국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이미 “중앙대응영도소조가 설립되어 ‘통일적 지도’와 ‘통일적 지휘’ 하에 각급 지도자들이 각 지역에서 전염병 방역업무를 잘 진행해 나가고 있다”라고 한 말 물려서고 있다. 신화사의 수정원고는 시진핑 자신이 중심이 된 대응하고 있다는 의미보다는 ‘영도소조’가 대응의 전체국면을 책임지고 이끌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수정은 중국공산당 중앙선전부가 시진핑의 대외적 언술을 관리하고 있기에 중국공산당이 공식적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安德烈, 2020). 이러한 총서기 발언에 대한 수정은 ‘정치안보’와 관련된 “두 개의 보위”와 연결된다.

셋째, 중앙차원에서의 ‘코로나19’ 대응은 철저하게 ‘정치안보’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시진핑 총서기의 당중앙 핵심 및 전당 핵심 지위에 대한 보위, 당 중앙의 권위와 집중통일영도의 보위”라는 “두 개의 보위(两个维护)”라는 당의 “기초성 법규(基础性法规)”는 ‘정치안보’의 주요 대상이 된다(《新华网》2019. 1. 13).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중국공산당 정치적, 조직적으로 취한 모든 조치는 이를 목표로 하여 실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와 같이 중국공산당 중앙을 중심으로 짜여진 ‘코로나19’ 대응체계를 보면, 당중앙, 인민해방군, 국무원 국가위권위, 그리고 각 지방정부로 대응단위가 구성되어 있고 영도소조에 의해 전체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중앙서기처가 중심이 되어 정치적 이슈를 관리하고, 국무원이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를 실행하는 정치와 행정의 업무분담이 이뤄져 있으나 그 주도권은 ‘정치안보’ 차원의 정치적 결정이 우선된다.

시진핑 총서기가 주재하는 정치국상무위원회 회의와 정치국 회의

가 당시 빈번하게 개최되어 중요한 결정을 하였다(《人民网》, 2020. 5. 13.). 현장에서의 대응 즉 방역실무와 관련된 행정적, 정책적 대응은 영도소조 조원 국무원 부총리 쑨춘란이 맡았는데 쑨춘란은 중국공산당 중앙 통전부 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정치국 위원으로 주로 당 업무를 담당해왔다. 그녀는 국무원 부총리로서 담당하는 분야는 과학기술, 보건, 교육, 문화 분야를 책임지고 있어 중앙지도조(中央指导组) 조장을 맡아 현장인 후베이성에 파견되어 직접 현장대응을 지도하였다.<sup>14)</sup> ‘영도소조’의 현장대응 담당 조원 쑨춘란을 제외하고 다른 8명의 조원들은 베이징에서 ‘선전’, ‘치안’, ‘대외선전’ 등의 사회안정, 정치안정 등과 관련한 이른바 ‘공중전’을 수행하였다. 총서기 시진핑과 중국공산당 중앙의 권위를 보위하기 위한 ‘코로나19’의 정치적 대응에 대해 앤드류 나단(Andrew Nathan)은 “중국의 시스템은 깨지기 쉽지만, 아직 깨지지 않는 것이다.”라고 2월 10일 *Foreign Policy*와의 인터뷰에서 평가한 바 있는데, 그의 말이 비교적 정확한 표현인 듯하다.

〈표 1〉 ‘코로나19’ 기간 중 시진핑과 리커창 활동 비교

2020 2월 1일 ~ 4월 27일	시진핑 (习近平)	리커창 (李克强)
회의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공중앙정치국상무회의의 5회</li> <li>• 중공중앙정치국회의의 3회</li> <li>•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의회의의 2회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무원상무회의회의의 11회</li> <li>• 코로나19대책영도소조회의의 24회</li> <li>• 기타 7회</li> </ul>
중요연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习近平在二十国集团领导人特别峰会上的重要讲话&gt;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李克强在东盟与中日韩抗击新冠肺炎疫情领导人特别会议上的讲话</li> </ul>
현장탐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习近平在北京考察新冠肺炎防控科研攻关工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李克强考察疫情防控国家重点医疗物资保障调度平台</li> </ul>

자료: 저자 작성

14) 쑨춘란은 4월 20일 우한에서 철수했는데, 우한에 도착한 이후 약 80차례에 방역회의를 개최하였고, 200여차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였다고 한다(《中华人民共和国政府网》, 2020. 4. 20).

넷째, 최고위 정치지도자인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의 관련 활동을 보면, 두 최고지도자들이 각기 다른 영역에서 마치 ‘경쟁하듯’ 활동을 이어나고 있다는 점이 발견된다. 영도소조의 조장을 맡아 불가피하게 대응체계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는 리커창 총리는 2020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국무원 상무위원회를 11회 개최하고, 영도소조 회의를 24회 개최하는 등 총 50차례의 회를 개최하여 대응과 관련된 실무를 총괄했음을 알 수 있다. 리커창 총리는 중심으로 하여 국무원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전염대응 연합방역통제업무기제(应对新型冠状病毒肺炎疫情的联防联控工作机制)〉라는 32개 부처가 포함된 매머드급 대규모 대응기구를 설립했다.<sup>15)</sup> 국무원 통합기구가 2월 3일에 각 지방에 30개의 공작조를 파견하여 각 지역 상황을 점검하고 방역의 지도하였다(《中华人民共和国政府网》, 2020. 1. 22).

한편 자신이 직접 즐겨 맡았던 중요한 ‘영도소조’의 조장을 리커창 총리에게 넘기고 ‘코로나19’ 대응과정의 일선에서 물러나 ‘2선’에서 조용히 활동할 것 같았던 시진핑 총서기 역시 우한에 인민해방군의 현지 투입을 통해 현지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하고, 중공 중앙정치국상무위원회 회의 5차례, 중공중앙정치국 회의 3차례 등 총 17차례 걸쳐 회의를 주재하는 등 중요한 ‘정치적’ 활동을 이어나갔다. 그리고 연설 3회, 지방 및 현장 시찰 총 5차례 단행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일선

15) 국가위건위(国家卫健委)를 비롯하여 중공중앙선전부(中共中央宣传部), 외교부(外交部), 국가발전개혁위(国家发展改革委), 교육부(教育部), 과기부(科技部),公安부(公安部), 재정부(财政部), 민정부(民政部), 인력자원보장부(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 교통운수부(交通运输部), 중국철도공사(中国铁路总公司),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농업농촌부(农业农村部), 상무부(商务部), 시장감독총국(市场监管总局),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 중국민항국(中国民航局), 국가임업초원국(国家林业和草原局), 국가약품감독관리국(国家药品监督管理局), 문화관광부(文化和旅游部), 중국적십자회(中国红十字会), 중앙군사위후근보장부 위생국 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에서 대응업무를 지휘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다. 시진핑과 리커창의 이러한 ‘경쟁적’ 대응활동을 두고 일부에서 ‘코로나19’ 기간 양 계파 간 권력투쟁이 진행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sup>16)</sup> 그러나 외부에서 이를 확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같은 기간 권력투쟁과 관련된 주장은 모두 외부 ‘관찰자’의 상상과 추론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문제를 깊게 논의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중국정치엘리트들의 인사이동의 결과를 분석하여 어떤 인물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파악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다.

### 3. ‘코로나19’ 대응 기간 중국정치엘리트 인사

과거 중국공산당은 국가적 위기나 정책적 실패 뒤의 국가적 혼란 와중 정치세력 간 정치적 갈등이 표면화되기도 하였다. 1959년 마오쩌둥은 대약진과 인민공사 운동이 실패한 후 제3차 전국인대 제1차회의에서 ‘2선’ 후퇴를 선포하였고, 그 후 8월 개최된 루산회의(庐山会议)에서 마오쩌둥의 노선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으로써 당내갈등이 표면화되었다. 그러나 마오쩌둥은 자신을 비판한 펑더화이(彭德怀)를 공격하고 숙청함으로써 비록 자신은 ‘2선’에 후퇴했지만 실질적으로 누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다(薄一波, 2008; 1016-1017). 이는 국가적 위기에서 실행되는 인사는 곧 권력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16) 대표적으로 민신 페이(Minxin Pei)는 시진핑 정권의 분열이 가속화되고, 리커창, 왕양 등과 같은 시진핑의 정치적 경쟁자로부터 자신의 권위가 위협받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Pei, 2020); 한편 제임스타운 재단(Jamestown Foundation)의 램(Willy Wo-Lap Lam) 박사는 ‘코로나19’가 시진핑의 집권 후 중국공산당 지도부에 “가장 중대한 위기”(gravest crisis)를 초래했고 평가하고 있다(Lam, 2020); ‘코로나19’에 대한 중국정치 내의 권력투쟁과 관련해서는 Ang(2020)을 참고.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코로나19’ 대응 기간 국가적 위기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정 인사는 ‘원활하게’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 중국정치엘리트의 인사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코로나19’에 대한 초기대응 실패 책임을 지고 인사이동은 우한과 후베이성에 국한하여 제일 문제가 되는 당정 지도자를 교체하는 선에서 최소화하였고, 2월 10일 후베이성 위생건강위원회 장진(张晋) 당서기, 류잉쯔(刘英姿) 주임을 면직하였다(《中共中央纪律检查委员会网》, 2020. 2. 11). 그리고 마지막 수순으로 2월 13일 후베이성위 서기 장차오량(蒋超良)을 면직하고 그 자리에 상하이 시장인 잉용(应勇)을 옮겨 대신하게 하고, 우한시위 서기 마귀창(马国强) 역시 산둥성 지난시의 시장인 왕중린(王忠林)으로 교체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불안한 우한의 치안관리를 맡겼다. 교체된 인물의 “인적 네트워크” 특징을 살펴보면 중국공산당 내 권력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다. 1959년의 마오쩌둥의 인사조치와 같이 ‘코로나19’ 기간 시진핑의 권력의 세기 또는 권력의 변동을 측정할 수 있다. 먼저 후베이성위 서기에 임명된 잉용은 시진핑과 긴밀하게 연 저장상에서 장기간 정법계통 업무를 맡았던 대표적인 ‘시자권’(习家军)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시진핑이 저장성에 있을 때 저장성 감찰청 청장, 고급인민법원 당조서기 및 원장으로 근무했으며, 시진핑과 함께 상하이로 옮겨가 상하이 고급인민법원 당조서기, 상하이시위 조직부장, 부시장 등을 거쳐 2017년 상하이 시장이 되었다(《BBC中文网》, 2020. 2. 13). 잉용에 앞서 2월 8일 후베이성으로 전임한 또 한 명의 ‘시자권’인 중공 중앙정법위 비서장 천이신(陈一新)은 ‘중앙 전염병대응공작영도소조’ 지도조 부조장으로 현지에 파견되었다.<sup>17)</sup> 중공중앙이 정법위 비서장

17) 천이신은 시진핑이 저장성위 서기 시기 저장성위 부비서장으로 근무한 시진핑의 ‘옛 동료(老同事)’이면서 시진핑의 저장인맥으로 알려져 있다(《新京

을 지도조 부조장으로 임명하여 파견한 것은 중앙정법위 오기 전에 우한시 서기를 역임한 바 있어 우한시 상황을 잘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이렇듯 시진핑은 쑨춘란에게는 지도조 조장으로 현장에서의 방역을 총괄지휘하게 하고 그의 수족인 잉용과 천이신 같은 정법계통의 전문가들에게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정치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우한시 서기 왕중린은 산둥성 자오좡시(枣庄市)의公安 출신으로 산둥성에서 오랜기간 근무하였고 시진핑 정권이 들어선 이후 산둥성 발전개혁위 주임, 산둥성 지난시 부서기를 거쳐 2017년 지난시장 된 인물이다. 중공중앙이 그를 우한에 배치한 이유 역시 오랜 기간의 지방公安 경험에 ‘코로나19’로 인해 극도로 불안한 우한시의 치안문제를 해결하기 유용하다고 봤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비록 시진핑과는 직접적인 업무상 연결점을 찾을 수 없으나, 시진핑이 3월 10일 ‘방역성공’을 선포하기 위해 우한시를 방문하기 전인 3월 5일, 왕중린은 시진핑 주석과 중국공산당 “은혜에 대한 감사 교육(感恩教育)”<sup>18)</sup>을 실시함으로써 자신의 충성심을 드러낸 적이 있다.

잉용이 후베이성으로 자리를 이동한 이후 거의 한 달이 넘게 공석인 상태로 남아 있었던 상하이 시장 자리에 산둥성 성장인 공정(龚正)이 3월 24일에 임명되었다. 상하이 시장직은 상하이시가 중국경제와 정치에 갖는 무게감으로 인해 중국공산당 중앙 입장에서 인사의 중요한 지역 중 하나이다. 따라서 여기에 누구를 앉히느냐가 곧 중국공산당 최고위층 내의 권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준다.

报网》, 2020. 2. 10).

18) 시진핑에 대한 이른바 “감사은혜교육(感恩教育)”의 내용은 “感恩总书记, 感恩共产党, 听党话, 跟党走, 形成强大正能量” 등이었다고 전해진다(《BBC中文网》, 2020. 3. 9).

중공중앙 최고위층의 권력향방과 관련된 권력경쟁 과정정보를 외부 관찰자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상하이시장 인사결과를 보고 당내 정치의 역동적 과정을 역으로 유추할 수 있다. 상하이 시장에 임명된 공정은 시진핑과의 업무상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은 없으나, 시진핑 정권에서 약진하고 있는 ‘저장인맥[之江新军]<sup>19)</sup>’중 한 명으로 간주된다. 공정의 약력을 살펴보면, 2008년 말 저장성 부성장을 시작으로 저장성 출신 인물들과 인연을 맺게된다. 시진핑과 관계가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현 상하이시 서기 리창(李强)과 7년 동안이나 같이 따라서 공정 역시 넓은 범위에서 시진핑의 ‘저장네트워크’에 포함할 수 있다(《中央广播电台》, 2017. 10. 18).

둘째,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주석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치링허우(70后)”로의 정치엘리트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위로부터의 의도적이고 인위적인 세대교체를 통해 빠르게 친시(亲习) 권력기반을 강화하려는 정치적 목적 이외, ‘국가안보’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이로 인해 점점 더 강한 압박을 받고 있는 중국공산당의 ‘정치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젊은 전문가를 전진 배치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시진핑은 2018년 6월 29일 정치국회의에서 젊은 세대로의 교체에 대한 전체적인 구상을 제시한 바 있는데, 그는 “신시대 요구에 걸맞은 우수한 젊은 간부를 빨리 발굴 육성해 활용하여 당과 국가사업 발전에 새로운 활력”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젊은 간부의 육성은 당사업 계승할 후계자와 국가 장기

19) 시진핑의 ‘저장인맥[之江新军]’은 종사오권(钟绍军) 중앙군사위 판공청 주임, 천민얼(陈敏尔) 충칭시 서기, 차이치(蔡奇) 북경시 서기, 잉용(应勇) 후베이성 서기, 샤바오룽(夏宝龙) 홍콩마카오판공실 주임, 황쿤밍(黄坤明) 중앙선전부 부장, 천이신(陈一新) 중앙정법위 비서장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다(《경향비즈》, 2020. 2. 19).

안정 등과 직결된 중국공산당의 ‘중대한 전략적 임무(重大战略任务)’라고 선언한 바 있다(《人民网》, 2018. 6. 29).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사회의 압박과 국내 사회경제적 환경 악화에 따른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중국공산당은 세대교체를 향한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5월 22일에 개최된 2020년 양회에서 ‘치링허우’들의 약진이 가속되고 있다. <표 2>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중국정치에 등장하고 있는 70년대 이후 출생자 33명의 명단이다(《中国共产党新闻网》, 2020. 5. 19). 이들 젊은 정치엘리트들은 주로 지방당정기관, 금융 및 국영기업, 기율감찰기구 등 정법계통 출신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다. 이는 시진핑 정권들어 공안, 정법 계통 출신 엘리트들의 약진과 무관하지 않다. ‘정치안보’ 확보의 가장 중요한 수단은 역시 공권력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 “70后” 성부급(省部级) 간부 명단

이름	출생년월	현직	
스광후이	时光辉	1970.01	꾸이저우성 상무위원, 정법위 서기
류제	刘捷	1970.01	꾸이저우성 상무위원, 비서장
쉬다통	徐大彤	1970.02	산시(陕西)성 부성장
왕홍옌	汪鸿雁	1970.04	공청단중앙 상무서기, 전국청련주석
펑중화	冯忠华	1970.05	하이난성 부성장
황즈창	黄志强	1970.06	네이멍구자치구 부주석
귀닝닝	郭宁宁	1970.07	푸젠성 부성장
류샤오타오	刘小涛	1970.07	저장성 부성장
리이	李毅	1970.07	헤이룽장성 부성장
리원저	李云泽	1970.09	쓰촨성 부성장
저우홍보	周红波	1970.10	광시좡족자치주 부주석
렌마오쥔	连茂君	1970.11	텐진시 상무위원, 부시장
아둥	阿东	1970.11	지린성 부성장
장리린	张立林	1971.01	랴오닝성 부성장
천사오왕	陈绍旺	1971.02	랴오닝성 다롄시 부서기, 시정부 당조서기, 부시장, 시장대리

이름		출생년월	현직
류창	刘强	1971.03	산둥성 부성장
주거위제	诸葛宇杰	1971.05	상하이시위 상무위원, 비서장
장시	章曦	1971.06	안후이성 부성장
양즈원	杨志文	1971.07	칭하이성 부성장
친웨이중	覃伟中	1971.07	광둥성 부성장
페이가오원	费高云	1971.08	장쑤성 부성장
푸웨페이	蒲宇飞	1971.10	국가감독위응급관리기율감독조 조장 응급관리부당위원회
저우량	周亮	1971.10	중국은행보험감독회 부주석, 당위위원, 중국금융공회 부주석
거하오자오	葛海蛟	1971.12	허베이성 부성장
우하오	吴浩	1972.02	장시성 부성장
리신란	李欣然	1972.03	중앙기율위 중국은행보험감독회기율조 조장, 중국은행보험회 당위위원
라이자오	赖蛟	1972.04	닝샤회족자치구 부주석
주중밍	朱忠明	1972.04	후난성 부성장
리보	李波	1972.07	충칭시 부시장
청사오보	程晓波	1972.10	간수성 부성장
양진보	杨晋柏	1973.04	광시장족자치구 부주임
루동량	卢东亮	1973.12	산시(山西)성 부성장
런웨이	任维	1976.05	시장자치구 부주임

자료: 《中国共产党新闻网》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 IV.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중국의 외교적 대응

##### 1. 중국경제의 세계화와 ‘코로나19’ 팬데믹의 연관성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경제성장은 경이적이었다. 사회주의 국가가 외부로부터의 강압에 의해 시장경제체제를 외삽(外挿)한 것이 아닌 중국 스스로, 자발적으로 계획경제를 시장경제로의 전환이었기 때문에 자유주의 진영에 주는 메시지는 컸다. 중국의 덩샤오핑이 개혁과

대외개방을 선언하자 미국을 비롯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모두 반겼으며,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시장경제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중국내부의 시도를 환영하였다(Selden, 1993; 5-6). 당시 냉전체제 하 사회주의 진영에 자유주의 진영이 보여줄 수 있는 ‘체제전환’의 바람직한 사례였을지 모른다. 그리고 지난 개혁개방 40년 동안 중국경제는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았다.

2019년 현재 중국경제는 전체 GDP 규모는 약 14조 달러이며, 1인당 국민소득은 10,000 달러 수준이다. 14억 인구의 1인당 국민소득의 국제순위만 놓고 보면 전체 66위를 기록하고 있다(IMF, 2019).<sup>20)</sup> 그러나 1인당 국민소득 10,000 달러라는 수치는 역으로 중국 내 도시와 농촌 간 그리고 계층 간 소득격차가 여전히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최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전체회의 폐막 후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리커창 총리가 “중국의 1인당 평균소득은 3만 위안이지만, 6억 인구의 월소득이 1000위안 밖에 안 된다.(中国是一个人口众多的发展中国家, 我们人均年收入是3万元人民币, 但是有6亿人每个月的收入也就1000元)라고 말한 바 있는데(李克强, 2020), 이는 시진핑 주석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되는 18차 당대회에서 경제사회발전의 전략적 목표로 제시했던 전면적 샤오강(小康) 사회의 완성이 결코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sup>21)</sup> 그런데 중국경제는 2010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둔화를 겪고 있다.

성장을 이끌었던 중국경제의 장점이 약화되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 정부주도형 성장의 한계, 제조업 부문의 비용 증가 등 국내경제적 요

20) 같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미국의 GDP는 21조 4천억 달러, 일인당 국민소득은 65,000달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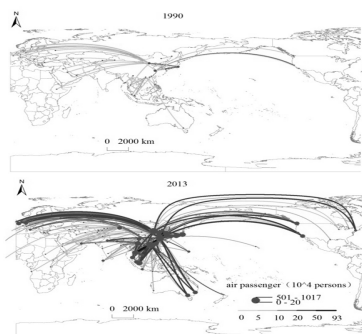
21) 리커창 총리의 기자회견 내용과 다르게,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공산당 18차 당대회 이래 ‘샤오강사회의 전면적 건설의 역사적 성취’를 이루었다고 최근 주장했다(习近平, 2020c).

인과 미중무역갈등과 같은 대외경제적 요인들이 겹치면서 성장률 둔화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특히 미중 간의 무역분쟁으로 인한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규제와 압박이 지속되면서, 고생산비용과 무역규제를 피해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새로운 투자지를 찾아 “탈중국화”(去中國化)하고 있다(《한겨레신문》 2019. 7. 15). 세계화가 중국경제에 커다란 ‘기회의 창’이었다고 한다면,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점점 거세지고 있는 세계화에 역행하는 ‘보호무역주의’와 이로 인한 중미간 무역전쟁은 중국경제에 ‘위기의 깊은 터널’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또한 발전모델을 전환시키고, 변화에 적응하는 경제체제로의 개혁을 추진하는 ‘개혁과 전환 모멘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

미중 간 무역갈등, 경기침체와 경제의 장기적 성장둔화, 불평등의 심화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렵게 시작한 두 개의 백년 중 첫 번째의 마지막 해인 2020년에 ‘코로나19’가 우한에서 발생하였다. 순식간에 전 세계로 확산되는 팬데믹 상황이 도래하였다. 그 과정에서 그동안 국제사회가 높게 평가하고 있던 ‘기적을 만들어 낸 중국의 시스템’에 대해 국제사회는 재평가하기 시작하였다. 장기간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면서 거대인구의 중국의 경제발전을 이끌었던 ‘발전국가’ 중국의 당-국가체제의 효율성과 능력이 돌발적인 위기 앞에서 작동하지 않았다. ‘코로나19’의 초기대응에서 나타나듯 중국 국가체제의 본질적 성격 속에서 잠재되어 있던 부정적 측면만 그대로 드러났다(E. Economy, 2020). 그리고 ‘코로나19’의 확산과 함께 중국 체제에 대한 의구심은 국제사회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역설적이지만 중국과 세계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지 중국의 세계화 정도가 이를 통해 확인되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세계와 연결된 중국 우한에서 ‘우연히’ 발생한 사태는 중국이 세계와 링크되어 있는 그 루트를 따라 점점 확산되어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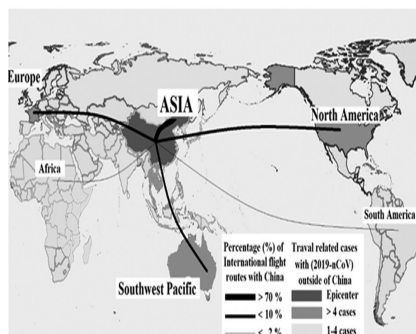
〈그림 3〉는 1990년과 2013년 여행지별 국제선 이용 승객수를 그래프화한 것인데(Wang et al, 2019: 7), 2013년과 1990년을 비교했을 때 전체 해외로 향하는 승객 수가 급속하게 증가했고 해외 목적지 또한 눈에 띄게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20여년 전 1990년 비해 중국이 중국 외 국가와 교류하는 폭과 빈도와 범위가 깊어 지고 확대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렇듯 중국의 국제노선의 승객 증가라는 지표로 중국경제와 세계시장, 중국인과 세계인의 교류가 얼마나 증가했는지에 대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 세계 밀접하게 링크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한편 〈그림 4〉는 2020년도 ‘코로나19’가 중국에서 확산되는 경로를 그래프로 표시한 것인데 ‘코로나19’가 중국 국제항공노선을 타고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는 것으로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국제노선 데이터’와 ‘코로나19 감염사례’라는 두 가지 데이터를 놓고 그 연관성을 분석한 이 연구는 중국의 세계화 정도와 교류의 밀도가 전염병의 확산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Lau et al., 2020).

〈그림 3〉 중국 국제선항공 여객 수(1990, 2013)



자료: Wang Jiaoe(2019)

〈그림 4〉 중국 국제선항로와 ‘코로나19’ 감염사례 수



자료: Hien Lau(2020)



198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된 세계화(globalization)의 경제적 이점을 가장 잘 활용한 나라가 바로 중국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주요 요인으로는 국내적으로는 계획경제체제의 개혁이지만, 대외경제적 환경은 역시 미중간의 수교 이후 본격화된 세계경제로의 편입이었고, 이는 세계화의 흐름을 타고 가속화되었기 때문이다(서상민, 2019). 다시 말해 중국의 경제발전은 경제의 대외개방정책과 미국 등 자본주의 국가들의 신자유주의적 확산정책이 결합되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1990년 사회주의 진영의 해체 이후에는 전 세계의 시장이 하나로 빠르게 통합되어 갔기 때문에 더욱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었다. 2001년 중국은 WTO의 가입으로 인해 중국은 명실상부하게 “세계의 공장(world’s factory)”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고(Zhang, 2006), 전 지구적 산업연계망의 중심에 자리할 수 있었다.

반면 이는 중국경제가 중국 외부세계의 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컸다는 것을 의미하며, 외부의 변화가 내부의 체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내외부가 밀접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Zweig, 2002: 211-258). 세계화라는 거대한 운송 시스템발달, 자유로운 교역과 노동 이동성으로 인해 매일 중국의 상품과 인력을 빠르게 세계 각지에 보내고 받고 있다. ‘코로나19’는 중국경제 발전의 발판이었던 세계화의 길을 따라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sup>22)</sup> 한편 이러한 세계화는 ‘코로나19’의 초기대응에 한 국제사회의 평가도 마치 중국의 Lenovo ThinkPad, Haier LED TV, HUAWEI P40(5G) 등의 상품을 구매해 집에서 받아 보고 그 상품에 대해 평가하듯 자유롭게 이어졌다. ‘코로나19’의 발생 초기 중국의 대응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좋지 못했다.<sup>23)</sup> 발생과 확산 초기 중국의 대응은 자국의 경제가 의존해 왔

22) ‘코로나19’ 팬데믹과 세계화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Estrada Ruiz, Mario Arturo, and Alam Khan(2020)를 참고.

던 국제사회 즉 중국 상품을 소비해주었던 전 세계의 모든 소비자들에게 ‘중국이 취한 대응조치’는 신뢰를 주지 못했고, 국제사회가 세계 제2위 경제대국 정치대국에게 기대하는 책임감과 위기대응 능력을 보여주지도 못했으며(Chi Wang, 2020) 대신 중국공산당의 안위와 안전, 자국의 이익만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대국으로써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인상을 줬다는 지적이 많다(Madan, 2020).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반중 정서에 대해 중국 내에서조차 “신냉전시대 돌입”(Bermingham and Zhou, 2020), “천안문사태 이후 미중관계 최악”(《Reuters》, 2020. 5. 4)이라는 등의 국제사회에서 미중관계 악화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sup>24)</sup>

국제사회의 반중여론을 이끌어가고 있는 나라는 역시 최대의 경쟁국인 미국이다. 전략적 시각에서 잠재적 경쟁자인 중국에 대한 압박,

23) 그 근거로 지난 5월 19일 세계보건기구(WHO) 194개 회원국들이 “코로나19”의 기원과 확산 등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실시결의안”을 만장일치로 동의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여기에서 기원과 확산의 책임을 규명한다는 요구는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유럽 등 많은 나라가 중국의 초기 대응을 비판하면서 WHO에 제기했다.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여기에 동의했다. 관련된 내용은 다음을 참고, Keaten and Cheng(2020). 이와 함께 다수의 국가에서 중국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된 내용은 Harper(2020)의 기사를 참고.

24) ‘코로나19’ 발생 이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국정책을 종합한 결정판인 「미국의 대중국전략보고서(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가 미국의 대중인식 전체를 보여준다. 트럼프 행정부가 5월 22일 의회에 제출한 이 보고서에서, 중국은 1979년 미중국교수립 이후 미국이 기대했던 것에서 모두 벗어났다고 전제하고, “지난 40여 년 동안 ‘중국공산당’은 경제, 정치, 군사적 역량을 강화하면서 미국의 핵심이익뿐 아니라 전 세계 국가의 주권과 존엄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세계 질서를 중국의 국익을 위해 변용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러한 중국의 도전에 맞서 미국은 다양한 대중국 정책을 재평가하고 경쟁력 있는 접근법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White House (2020)를 참고.

단기적으로는 미중무역분쟁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수단처럼 보이지만, 결국 미국 역시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이해관계, 그리고 그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제1차 미중무역전쟁의 합의안에 대한 실천의지 확인 등 자국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대외여론전의 성격이 커 보인다. 미국의 반중 정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강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관련 설문조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중국과의 무역분쟁이 진행되는 동안 반중 정서가 '경향적으로' 악화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 기간 중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에서 실시한 미국인의 대중국 인식 연례조사 결과를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그림 5>에서 같이 2014년 이후 보다 많은 미국인들은 세계경제를 중국이 아닌 미국이 이끌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는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그림 6>은 미국인들의 대중국 인식의 추이를 보여주는데, 2012년을 기준으로 대중국 인식은 호감에서 비호감으로 역전되었다. 특히 2017년 호감과 비호감의 격차가 3%에 지나지 않았았던 것이 불과 1년 후인 2018년 미중무역 분쟁이 격화되면서 중국에 대한 호감과 비호감의 격차가 훨씬 크게 벌어졌고, 2020년 '코로나19' 기간에는 호감(66%)과 비호감(26%)의 격차가 40%에 달하고 있다. 또한 이 여론조사의 다른 질문항목을 보면 현재 미국인들이 중국에 대해 매우 위협적으로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커져 가고 있는 중국의 힘과 영향력을 위협으로 받아들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미국인 91%가 "그렇다"라고 답변했을 정도이다.<sup>2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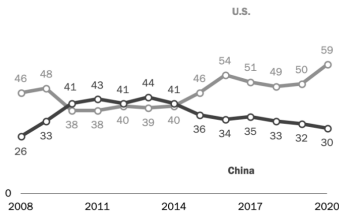
25) 이 조사는 18세 이상의 미국인 1천 명을 대상으로 하여 2020년 3월 3일~29일에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pm 3.7\%$  포인트이다. 설문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Devlin, Silver and Huang(2020) 참고.

〈그림 5〉 세계경제 리더 인식

**More Americans name the U.S. as the world's leading economic power than China**

% who say \_\_\_ is the world's leading economic power

100 %



Note: Data for "Japan" and "The countries of the European Union" and for the volunteered categories "Other" and "None/There is no leading economic power" not shown. Don't know responses not shown.

Source: Survey of U.S. adults conducted March 3-29, 2020, Q14.  
 "U.S. Views of China Increasingly Negative Amid Coronavirus Outbrea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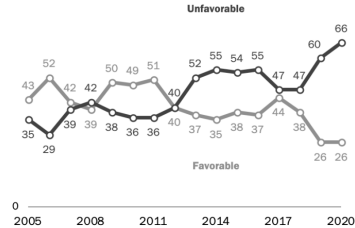
PEW RESEARCH CENTER

〈그림 6〉 미국인의 대중인식

**Negative views of China continue to grow in U.S.**

% who say they have a \_\_\_ opinion of China

100 %



Note: Don't know responses not shown.

Source: Survey of U.S. adults conducted March 3-29, 2020, Q5b.  
 "U.S. Views of China Increasingly Negative Amid Coronavirus Outbreak"

PEW RESEARCH CENTER

자료: Pew Research Center

자료: Pew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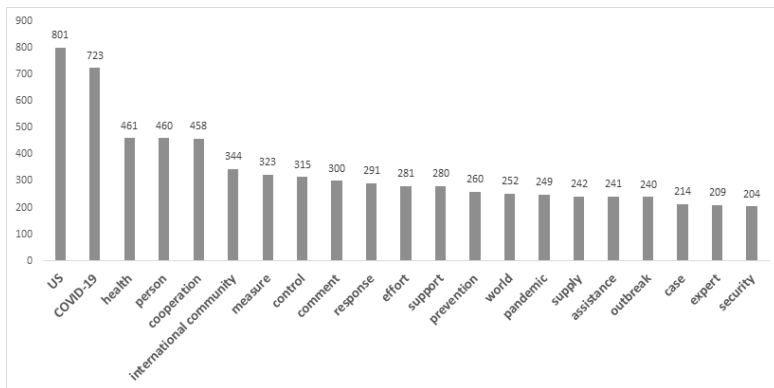
한편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중국 정서의 악화 원인 중 하나로 이른바 중국 외교부 대변인과 외교관들의 “전랑외교(战狼外交, Wolf-Warrior Diplomacy)”가 지적되는데(Zhu 2020), 중국공산당이 방역 관련 중국 당-국가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의 중국책임론을 방어하기 위한 “예방외교”적 성격이 강하나 이를 공세적이며 ‘책임회피’로 받아드리는 국가와 국민이 적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중국외교부 대변인들 ‘전랑’들은 ‘코로나19’기간 어떻게 여론전을 펼쳐 나갔는가?

## 2. 중국외교부의 외교적 대응 분석

‘코로나19’ 기간 동안 전개되었던 서방 국가들과 중국외교부 간의 논쟁 등 중국외교부의 대외여론전 살펴보기 위해, 2020년 2월 1일 ~ 4월 30일 정례 외신기자회견(Regular Press Conference)의 외교부 대변

인 언술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이 된 이 자료는 외신기자들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나누었던 질문과 답변으로 전체 내용을 중국외교부가 영어로 번역하여 외교부 홈페이지에 탑재한 “중국외교부의 기자회견 자료” 총 64개를 대상으로 삼았다.<sup>26)</sup> 언술분석은 외교부 대변인들이 자주 사용했던 단어의 빈도와 함께 그 단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가 갖는 의미, 그리고 단어 간의 연관성에 기반한 토픽모델링(topic modeling) 분석법<sup>27)</sup> 등을 활용하여 분석했다.

〈그림 7〉 중국외교부 정례외신기자회견에서의 상위 출현빈도  
명사(2020.2.1.~2020.4.30.)



자료: 저자 작성

26) 관련 자료는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홈페이지 “Home > Press and Media Service > Spokesperson's Remarks > Regular Press Conference”에서 찾을 수 있다.

27) ‘토픽모델링’ 텍스트 마이닝 기법 중 하나로 비구조화된 텍스트 자료의 문치에서 의미있는 주제(토픽)들을 추출해주는 확률모델 알고리즘 방법이다. 주로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알고리즘기법에 의해 추출된다. 토픽모델링 방법은 텍스트문치(corpus)의 내용을 자동적으로 코딩해서 의미있는 담화의 범주(토픽)하고 그 문서들 속에서 관련 주제를 분류하여 추출함으로서 비정형, 비구조화되어 있는 텍스트 본문 속 숨겨진 의미구조를 발견하기 유용한 분석기법이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Blei et al(2003: 993-1022) 참고.

첫째, 분석의 대상이 된 문서(document)의 총 수는 64개이다. 그 문서들 속에 포함되어 있던 문장(sentence)은 총 6,778개이고 단어(word)는 총 37,108회 출현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명사만을 추출하였다. 명사 중 의미가 같으나 표현이 다른 명사를 하나의 단어로 처리했더니 총 3,838개의 단어가 되었다. 그 중에서 2,822회로 가장 많은 출현빈도를 보여준 “China”라는 단어는 제외하였다. “China”를 제외한 이유는 분석대상인 자료가 중국외교부 외신기자회견 자료이므로 모든 자료의 내용이 중국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당연히 많이 출현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포함하여 분석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China”를 포함하여 분석할 경우 다른 단어들에 비해 지나치게 출현 횟수가 높아 연구자의 분석의도를 충족시킬 수 없는 정도로 분석 결과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빈도측정 결과 <그림 7>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중국외교부 대변인들은 2020년 2월 1일에서 4월 30일 사이 “US”(801회)라는 단어를 “COVID-19”(723회)라는 단어보다 더 많이 언급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3월 10일 시진핑 주석이 중국에서의 “방역성공” 선언을 기점으로 전후로 한 중국외교부 대변인들의 언술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체 64개 자료 중 28개는 2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의 전반부에 생성된 것이고, 36개는 3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생성된 것으로 국제사회의 책임론과 비판을 방어하고 국제사회에 방역 협력을 제안하고 있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전반부 자료의 총 단어수는 2,056개의 단어가 총 13,913회 출현하였으며, 후반부 자료에서는 2,499개의 단어가 총 22,160회 출현하였다. 전후반 시기의 대변인 언술들을 분석해 보면, 크게 두 가지 특징이 파악되는데 먼저 출현빈도의 상에 있어서 3월 10일 이전에는 “person”, “health”, “measure”, “control” 등의 단어들 상대적으로 상위에 올라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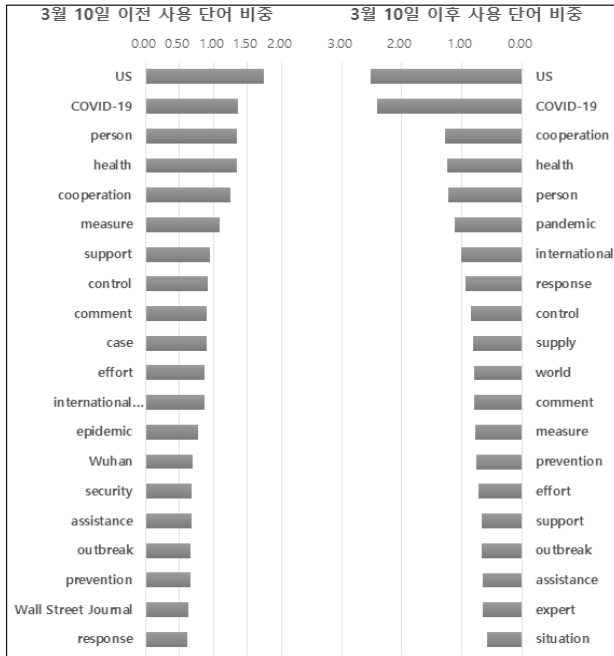
역과 관련한 대응조치와 감염자 수 등에 대한 언술들이 많았음을 보여준다.

〈표 3〉 출현빈도 단어 비교

3월 10일 이전 출현빈도 상위 단어	출현횟수	3월 10일 이후 출현빈도 상위 단어	출현횟수
US	242	US	559
COVID-19	190	COVID-19	533
person	187	cooperation	284
health	187	health	274
cooperation	174	person	273
measure	152	pandemic	247
support	133	international community	224
control	127	response	206
comment	126	control	188
case	125	supply	180
effort	121	world	174
international community	120	comment	174
epidemic	107	measure	171
Wuhan	97	prevention	168
security	95	effort	160
assistance	95	support	147
outbreak	93	outbreak	147
prevention	92	assistance	146
Wall Street Journal	88	expert	144
response	85	situation	127

자료: 저자 작성

〈그림 8〉 사용 단어 비중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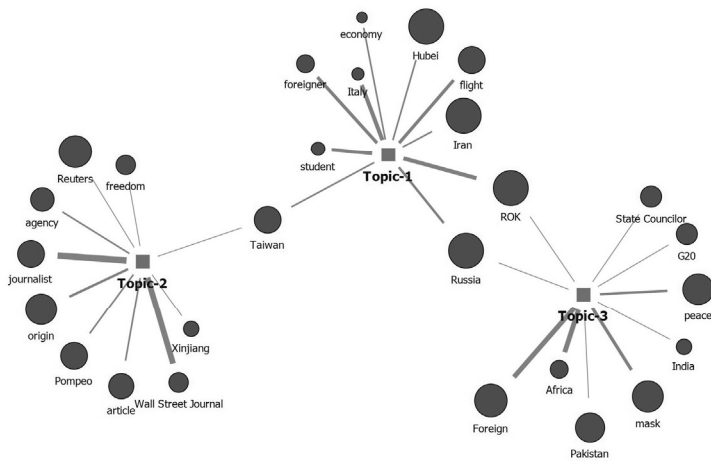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반면 3월 10일 이후에는 “cooperation”, “international community” 등의 단어들이 다른 단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출현했다는데 국제사회의 협력과 관련된 내용과 이슈를 전반기 보다는 더 많이 다루었다는 것을 수치로 알 수 있게 해준다. 두 번째, 출현빈도는 단순히 사용된 단어의 횟수이기에 그 자료의 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 단어사용 비중은 전체 출현 단어 수 중 특정단어의 사용 비율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단어의 상대적 위치를 알 수 있다. 3월 10일 이후 “US”와 “COVID-19”의 사용비중은 전체 사용횟수의 각각 2.52와 2.40으로 3월 10일 이전 1.73과 1.36에 비해 훨씬 더 자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두 단어를 제외한 나머지 단어들의 사용비중은 3월



10일 전후해 거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이것은 미국에서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됨에 따른 미국의 중국에 대한 ‘기원’과 ‘책임’ 등의 문제제기가 강력해지고 전방위적 압력에 대한 중국외교부의 대응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고 파악된다.

〈그림 9〉 2월~4월 중국외교부 대변인 발언의 주요 토픽



	1 <sup>st</sup> Keyword	2 <sup>nd</sup> Keyword	3 <sup>rd</sup> Keyword	4 <sup>th</sup> Keyword	5 <sup>th</sup> Keyword
초기대응조치 (Topic-1)	student	ROK	Italy	flight	foreigner
대외여론전 (Topic-2)	journalist	Wall Street Journal	origin	article	agency
마스크외교 (Topic-3)	Africa	Foreign	mask	peace	Pakistan

자료: NetMiner 활용 저자 작성

셋째, 중국외교부 관련 자료를 “토픽모델링분석법”을 통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3개의 토픽으로 구분된다. 그래프 처리과정은 먼저 전체 단어들에 대한 의미중복 단어와 오타자를 검수하고 정리하는 처

리과정을 거쳐 추출된 단어를 대상으로 하여 전체 자료에서 해당 단어가 차지하는 중요도를 “TF-IDF분석법” 측정한다. 그리고 중요 단어(키워드)와 단어 간 연관성을 기초로 특정 토픽으로 묶어낸다. <그림 9>에서 나타나듯이 각 토픽과 토픽 간의 네트워크이 형성되어 있으며, 네트워크 상에서 각 토픽을 연결해 주는 매개 키워드도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그래프에 표현된 각 키워드 노드의 크기의 차이는 분석을 통해 얻은 TF-IDF 값의 상대적 차이를 구현한 것이다.<sup>28)</sup>

이런 과정을 통해 분석해낸 각 토픽의 의미를 해석하자면, 첫 번째 토픽(Topic-1)은<sup>29)</sup> 중국외교부 대변인들이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외신기자들을 대상으로 전염병 진행상황, 중국의 대응조치, 초기단계에서 확산되고 있는 국가들과의 이동차단 등과 연관되어 있다. “초기대응조치” 토픽 중 중요도가 가장 큰 키워드는 “student”였는데, 이는 방학 중 개학을 앞둔 학생의 항공기를 통한 국외 이동과 관련된 중국외교부의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초기 단계에서 확산이 진행되었던 “ROK(Republic of Korea)”, “Italy” 등 국가들로의 확산에 대한 중국의 입장 등이 연관된 토픽이다.

두 번째 “대외여론전” 토픽(Topic-2)은 중국외교부 대변인들의 본격적이면서 공세적인 대외여론전과 관련된 토픽이다. 발단은 2020년 2월 3일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에 실린 미드(W. R.

28) 연관성 분석을 위해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분석” 중 텍스트 상 출현하는 단어들 중에서 그 단어가 갖는 중요도를 측정하여 중요도 높은 단어들을 추출하고, 중요한 단어들 사이의 연관성을 네트워크로 표현했다. 이른바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분석법은 해당 문서에서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을 확률 측정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Jones(1972: 111-121); Zhang et al(2005: 49-55) 참고.

29) 토픽의 이름은 연구자가 각 키워드의 조합을 파악하고, 키워드가 속해있는 document를 찾아 내용을 대조한 후 각 토픽을 이름을 정할 수 있다. 주어진 Topic-1,2,3 등의 어떤 의미도 없다.

Mead)의 칼럼에 대한 중국의 사과를 요구와 해당 언론사의 거부로부터 시작되어 2월 19일 WSJ기자 3명에 대한 기자증을 중국정부가 취소하였다. 바로 앞서 미국의 국무부가 중국의 관영언론사 5곳에 대해 “해외 외교기관(foreign mission)”으로 지정한 바 있다. 미국과 중국의 조치 결과 ‘코로나19’ 관련 이슈는 의도하지 않게 “언론자유논쟁”, “스파이논쟁” 등으로 촉발되면서 두 번째 “대외여론전” 토픽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토픽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journalist”이고 “Wall Street Journal”가 다음을 잇고 있다. 위의 그래프에서도 나타나듯 두 번째 토픽과 관련되어 있는 키워드들인 ‘Xinjian’, “freedom” 등을 볼 때 전방위적 여론전의 양상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월에서 4월 연구대상 전 기간 내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미중 양국 간 여론전의 주요 토픽이었다.

마지막 세 번째 “마스크 외교” 토픽(Topic-3)인데, “Africa”, “Foreign” 등과 관련된 중요한 키워드들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 등 서방세계에 대한 대응과 달리 중국은 3월 말부터 아프리카 등 세계 83개국을 대상으로 하여 마스크와 ‘코로나19’ 검사키트를 지원하는 이른바 ‘마스크 외교’를 펼쳤다. 그러나 단지 마스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중국공산당의 성공적 전염병 대응과 시진핑 주석의 위기관리 리더십에 대한 선전이 마스크와 함께 가면서 대응에 애를 쓰고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사회에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Lo, 2020).

이를 종합해 보면, 중국외교부 ‘정례 외신기자회견’ 자료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외교부는 지난 2월에서 4월까지, ‘코로나19’의 중국 초기 대응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과 공격을 방어하고, 미국 중심으로 제기된 책임론, 언론의 자유와 인권 침해와 같은 체제에 대한 비판을 강력하게 반비판하고 미국에 역공을 취해 왔으며, 아프리카와 주변국

들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지원 등을 활동을 선전함으로써 중국공산당과 시진핑 주석 그리고 중국의 이미지를 개선하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 V. 결론

위기는 한 나라의 통치능력과 안정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정당한 나라의 정직한 정치인이라면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지는 않는다. 위기의 시기는 언제나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고 없이 닥치기 때문에 한 국가 한 사회의 일상이 얼마나 견고하고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으며, 위기극복을 위해 무엇을 최우선하는지, 그리고 사회는 얼마나 통합하여 이를 극복하려 하는지 등을 가늠하는 이른바 한 국가의 ‘일상을 테스트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코로나19’에 대한 중국의 국내외 정치적, 외교적 대응의 고찰은 중국공산당 통치체제의 특징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임에 틀림없다.

먼저 ‘코로나19’ 국면에서 중국공산당 중앙은 ‘코로나19’ 대응을 철저하게 ‘정치안보’ 차원에서 관리하였다. “두 개의 보위(两个维护)”를 통해 중국공산당의 최고의 안보가치인 ‘정치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정법과 공안 계통’을 중심으로 한 ‘정치안보’ 전위대들이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중국공산당의 정치적, 조직적으로 전면에 등장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이다. 둘째, 시진핑 주석은 자신이 직접 즐겨 맡았던 중요한 ‘영도소조’의 조장을 양보했다. 즉 일선에서 물러난 듯했다. 그러나 ‘2선’에서 조용히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았던 시진핑 주석은 인민해방군의 우한 현지 투입, ‘정법과 공안’ 계통의 인사를 통해

‘공중전’등을 감행하였다. 중공 중앙정치국상무위원회 회의 5차례, 중공중앙정치국 회의 3차례 등 총 17차례 걸쳐 회의를 주재하면서 위기 국면에서 표출될 수 있는 ‘정치적 갈등’을 관리해 나갔다.

시진핑과 리커창의 다른 영역에서의 다른 활동을 두고 중국정치를 파벌투쟁의 틀에서 관찰하고 있는 ‘파벌분석가’들은 ‘코로나19’ 기간 양 계파 간의 극렬한 권력투쟁이 진행되고 있다는 근거라고 하기도 주장하지만 불행하게도 “권력내부”를 알지 못하는 “외부인”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외부 ‘관찰자’의 상상과 추론일 수밖에 없다. 다만 중국정치엘리트들의 인사이동의 결과를 통해 추론해 볼 수 있을 뿐이다.

외교적 대응과 관련한 대응은 훨씬 더 치열하다. 3월 10일 시진핑 주석이 중국에서의 “방역성공”을 선언한 시점을 전후로 한 중국외교부 대변인들의 언술의 차이는 전혀 달라졌다. 3월 10일 이후 중국외교부의 발언은 더욱 강경하고 공세적이었으며, 전투의 최전선에서 한 치의 물러섬없이 싸우는 ‘전랑’이었다. 중국외교부 ‘정례 외신기자회견’ 자료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외교부는 지난 2월에서 4월까지, ‘코로나19’대응에 대한 비판과 공격을 막아냈으며, 서방과 미국의 중국책임론, 당국가체제의 자유침해에 대한 체제비판 등에 대해 공격적인 자세를 취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아프리카와 중국에 우호적인 국가들에 대한 대대적인 방역지원과 대외선전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고립을 피하고자 하였다.

중국공산당은 위기발생 시 정치적 대응을 종합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중국공산당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의 정도를 판단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직적, 정책적 배치가 이루어진다. 둘째, ‘정치안보’ 즉 중국공산당의 지도력, 리더십, 정당성 등 통치능력을 약화시키는 각종 요인들을 제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

환의식'에 기반한 중국공산당의 통일적 지휘와 통제, '底线思维'에 따른 실용적이면서 효율적인 목표달성 방법을 추구한다. 셋째, 권력과 권한에 대한 고도의 집중을 도모한다. 중국공산당 중앙, 중국공산당의 핵심을 보위하기 위해 중국공산당 최고위지도부는 신뢰할만한 인사(예를 들어 시진핑의 저장네트워크)를 가장 취약한 곳에 직접 파견하여 현장에서의 위기관리를 담당하게 하고 그곳에 권력과 권한을 집중시키도록 배려한다. 넷째, '코로나1'의 외교적 대응에서 나타나듯 수세적 위치에 서지 않고 이슈를 선점하여 취약한 곳을 타격한다. 국제사회의 '중국책임론'에 대해 '방역실패', '리더십 부재', '체제상의 한계' 등으로 공세적 위치를 점하고자 한다.

'코로나19'라는 전 인류의 재앙이 새롭게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그동안 잠재되어 있어 드러나지 않았던 수많은 인류의 문제를 '코로나19' 이후 우리 인류가 어떻게든 해결하며 살아야가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를 대응하면서 세계 최대의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정치적, 외교적 실천행태는 인류의 미래를 걱정해야 할 만큼 충분히 이기적이었다. '코로나19'와 같은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인류 공적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대응법을 주도적으로 고민하고 해법을 모색해야 할 강대국들은 자국의 이익만을 앞세우면 '패권을 향한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최근 중국의 '홍콩판 국가안전법' 제정, 그리고 이에 따른 미국의 홍콩의 특별지위 폐지로 이어지는 양대 강국의 주고받기의 극단적인 적대적 외교행태는 마치 마주보고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는 기차를 연상시킨다. "누가 먼저 피할 것인가?" "누가 먼저 치킨이 될 것인가?" 승자와 패자를 찾는 게임처럼 전개되는 그야말로 "새로운 형태의 대국관계"를 보면서, 국제사회에서 "힘"(power)은 그 힘을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쓸 수 있는 도덕적이며 이타적인 국가가 가

져야 하고, 그 국가의 올바른 지도자가 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도 지속되어 왔던 미중 간 “패권을 위한 경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은 지난 2년 동안 밀고당기면서 진행해 왔던 미중무역전쟁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대결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 미국과 소련의 군사적 대결 하의 냉전체제와도 다른 양상이다. 미국과 중국은 ‘코로나19’ 국면에서도 그러했듯이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영역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 취하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미중 간 새로운 형태의 대결, 새로운 행태의 냉전이 형성”되고 있다. 다른 측면에서 의구심을 가지고 비판적으로 양국 정치를 관찰한다면, 양국의 정치조직과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잘 활용하는 “적대적 공생의 정치”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패권을 위한 경쟁”이거나 “갈등의 정치수단화”이거나 분명한 것은 최대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 관계가 점점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

## 참고문헌

- 서상민, 『중국현대정치와 경제계획관료』, 서울: 아연출판부. 2019.
- 이상만 · 김동찬, 「시진핑 친정체제 구축 방식과 그 함의에 관한 연구: 지도이  
념, 권력구조 개편과 통치 정당성 강화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34(4). 2018.
- 이용욱, 「위협의 다변화와 글로벌 거버넌스: 국가-주권 시스템의 위기와 한  
계」, 『국제지역연구』, 25:3. 2016.
- 이원우, 「안보협력 개념들의 의미 분화와 적용」, 『국제정치논총』, 51:1. 2011.
- 이지용, 「시진핑의 반부패 운동과 중국의 정치권력 엘리트 권력지형도 변하  
: 평가와 함의」, 『한국동북아논총』, 24(2). 2019
- 전웅, 「국가안보와 인간안보」, 『국제정치논총』, 44:1. 2004.
- 赵建民, 서상민 · 이광수 옮김, 2018, 『중국의 정책결정: 지도자, 구조, 기제, 과  
정』, 서울: 학고방.
- 조종화 외, 「중국의 외환정책과 국제통화질서: 위안화의 절상과 국제화를 중  
심으로」, 『KIEP 연구보고서』, 10-09. 2010.
- 최지영, 「시진핑 시기 중국 반(反)부패의 특징과 함의」, 『21세기정치학회  
보』, 26(4). 2016.
- 「미-중 무역전쟁 2년, 미국 제조기업 ‘탈중국’ 가속화」, 『한겨레신문』(2019.  
07.15),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globaleconomy/901866.html>  
(검색일: 2020.05.19.).
- 「习 ‘만기친람’ 통치에 대응시스템 마비... 양회 집착하다 골든타임 놓쳐」, 『서  
울경제』(2020.2.18), <https://www.sedaily.com/NewsView/1YYZ013Q82> (검색  
일: 2020.05.10.).
- 「위기의 시진핑, ‘즈장신권’이 막아줄까」, 『경향비즈』(2020.2.19),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02190927001&code=970204](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02190927001&code=970204) (검색  
일: 2020.04.20.).



郭瑞民, “坚定不移维护国家政治安全”, 『求是』, [http://www.qstheory.cn/llwx/2019-11/13/c\\_1125226170.htm](http://www.qstheory.cn/llwx/2019-11/13/c_1125226170.htm) (검색일: 2020.05.12.).

李大光, 『国家安全』, 北京: 中国言实出版社, 2016.

薄一波, 『若干重大决策与事件的回顾』(下), 北京: 中共党史出版社, 2008.

习近平a, 「坚持总体国家安全观走中国特色国家安全道路」, 《人民网》, <http://cpc.people.com.cn/n/2014/0415/c64094-24899781.html> (검색일: 2020.05.10.).

习近平b, 「完善重大疫情防控体制机制健全国家公共卫生应急管理体系」, 《中国政府网》, [http://www.gov.cn/xinwen/2020-02/14/content\\_5478896.htm](http://www.gov.cn/xinwen/2020-02/14/content_5478896.htm) (검색일: 2020.05.12.).

习近平c, 「在中央政治局常委会会议研究应对新型冠状病毒肺炎疫情工作时的讲话」, 《求是》, [http://www.qstheory.cn/dukan/qs/2020-02/15/c\\_1125572832.htm](http://www.qstheory.cn/dukan/qs/2020-02/15/c_1125572832.htm) (검색일: 2020.05.07.).

习近平d, 「关于全面建成小康社会补短板问题」, 《红旗》(2020/11), [http://www.qstheory.cn/dukan/qs/2020-05/31/c\\_1126055020.htm](http://www.qstheory.cn/dukan/qs/2020-05/31/c_1126055020.htm) (검색일: 2020.06.01.).

安德烈, 「习近平我亲自指挥被修改的秘密」, 《RFI》(2020.1.13) <http://rfi.my/5IPC> (검색일: 2020.04.12.).

张金海·马振超·朱旭东·丁姿, 「习近平总体国家安全观研究的系统性文献综述」, 『情报杂志』. 2020.

张海波, 「中国总体国家安全观下的安全治理与应急管理」, 『中国行政管理』(2016.04), 2016.

周亚东, 「底线思维: 习近平治国理政的重要方法之一」, 『理论视野』(2017.02), 2017.

许章润, 「我们当下的恐惧与期待」, 《天则观点》(2018. 7. 24) <http://unirule.cloud/index.php?c=article&id=4625>(검색일: 2020.05.07.).

「国家卫生健康委同相关部门联防联控 全力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 《中国政府网》, (2020.1.22). [http://www.gov.cn/xinwen/2020-01/22/content\\_5471437.htm](http://www.gov.cn/xinwen/2020-01/22/content_5471437.htm) (검색일: 2020.05.13.).

「今年多个副省级城市党政“一把手”调整 首次出现“70后”干部」, 《中国共产党新

- 闻网》, <http://renshi.people.com.cn/n1/2020/0519/c139617-31714226.html> (검색일: 2020.5.22.).
- 「今日环球总台央视记者专访武汉市市长周先旺」, 《CCTV中文国际》, <https://www.youtube.com/watch?v=PIZGs0SO1t0> (검색일: 2020.05.12.).
- 「李克强: 中国6亿人月收入仅1000元人均年收入3万元」, 《新浪财经》, <https://finance.sina.com.cn/china/gncj/2020-05-29/doc-iirczymk4111979.shtml> (검색일: 2020.05.29.).
- 「李克强主持召开中央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疫情工作领导小组会议」, 《中国政府网》, [http://www.gov.cn/guowuyuan/2020-01/26/content\\_5472302.htm](http://www.gov.cn/guowuyuan/2020-01/26/content_5472302.htm) (검색일: 2020.05.10.).
- 「武汉肺炎: 武汉市长暗示疫情披露不及时中央有责任」, 《BBC中文》, <https://www.bbc.com/zhongwen/trad/chinese-news-51276069> (검색일: 2020.05.10.).
- 「习近平: 我相信, 我们一定会战胜这一次疫情!」, 《中国新闻网》, [https://www.youtube.com/watch?v=2q-Vu0\\_-m0s](https://www.youtube.com/watch?v=2q-Vu0_-m0s) (검색일: 2020.04.16.).
- 「习近平主持中共中央政治局会议审议《关于适应新时代要求大力发现培养选拔优秀年轻干部的意见》」, 《人民网》 <http://politics.people.com.cn/n1/2018/0629/c1024-30096863.html> (검색일: 2020.05.22.).
- 「习近平会见世界卫生组织总干事谭德塞」, 《新华网》, [http://www.xinhuanet.com/politics/leaders/2020-01/28/c\\_1125508752.htm](http://www.xinhuanet.com/politics/leaders/2020-01/28/c_1125508752.htm) (검색일: 2020.04.11.).
- 「新闻辞典: 之江新军」, 《中央广播电台》, (<https://www.rti.org.tw/news/view/id/374763>) (검색일: 2020.04.20.).
- 「中共中央关于加强党的政治建设的意见」, 《新华网》, (2019.01.13), [http://www.xinhuanet.com/2019-02/27/c\\_1210069264.htm](http://www.xinhuanet.com/2019-02/27/c_1210069264.htm) (검색일: 2020.05.12.).
- 「中央战疫日志」, 《人民网》, (2020.5.3) <http://cpc.people.com.cn/n1/2020/0203/c164113-31568437.html> (검색일: 2020.05.08.).
- 「中央指导组: 精心治疗、悉心护理每一位患者」, 《中国政府网》, 2020.04.20, [http://www.gov.cn/guowuyuan/2020-04/20/content\\_5504458.htm](http://www.gov.cn/guowuyuan/2020-04/20/content_5504458.htm) (검색일: 2020.05.12.).

- 「陈一新任中央指导组副组长,微信群里与武汉干部见面」,《新京报网》, <http://www.bjnews.com.cn/news/2020/02/10/687306.html> (검색일: 2020.04.20.).
- 「亲自部署 亲自指挥: 习近平领导中国这样战疫」,《人民网》, <http://cpc.people.com.cn/xuexi/GB/432120/index.html> (검색일: 2020.05.12.).
- 「肺炎疫情: 应勇空降「救火」中共湖北换帅」,《BBC中文网》, <https://www.bbc.com/zhongwen/trad/chinese-news-51485021> (검색일: 2020.04.18.).
- 「肺炎疫情: 中国官员让武汉感恩 正能量舆论“翻车”」,《BBC中文网》, <https://www.bbc.com/zhongwen/simp/chinese-news-51800636> (검색일: 2020.04.18.).
- 「湖北省卫健委党组书记、主任双双被免职」,《中共中央纪律检查委员会》, [http://www.ccdi.gov.cn/yaowen/202002/t20200211\\_211210.html](http://www.ccdi.gov.cn/yaowen/202002/t20200211_211210.html) (검색일: 2020.04.18.).
- 「湖北省长、武汉市市长戴口罩开发布会: 500多万人离开了武汉」,《中国新闻网》, <http://www.chinanews.com/gn/2020/01-27/9070527.shtml> (검색일: 2020.04.16.).

Allen Ebrahimian, Bethany, “Timeline: The early days of China’s coronavirus outbreak and cover-up,” *AXIOS*, <https://www.axios.com/timeline-the-early-days-of-chinas-coronavirus-outbreak-and-cover-up-ee65211a-afb6-4641-97b8-353718a5faab.html> (검색일: 2020.05.09.).

Alper, Alexandra and Karen Freifeld, “US mulls cutting China’s Huawei off from global chip suppliers like Taiwan’s TSMC,” *South China Morning Post*, (Feb 17, 2020) <https://www.scmp.com/tech/policy/article/3051067/us-mulls-cutting-chinas-huawei-global-chip-suppliers-taiwans-tsmc>: (검색일: 2020.05.18.).

Ang, Yuen Yuen, “Is Political Change Coming to China?” Project Syndicate (Feb 14, 2020), <https://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china-coronavirus-xi-hold-on-power-by-yuen-yuen-ang-2020-02> (검색일: 2020.05.11.).

Bermingham, Finbarr and Cissy Zhou, “Coronavirus: China and US in ‘new Cold War’ as relations hit lowest point in ‘more than 40 years’, spurred on by pandemic,” *South China Morning Post*, (May 5, 2020) <https://www.scmp.com>.

com/economy/china-economy/article/3082968/coronavirus-china-us-new-cold-war-relations-hit-lowest-point (검색일: 2020.05.15.).

Blei, David M., et al., “Latent dirichlet allocation,” *Journal of Machine Learning Research* 3, Jan. 2003.

Devlin, Kat, Laura Silver And Christine Huang, “U.S. Views of China Increasingly Negative Amid Coronavirus Outbreak,” *Pew Research Center*, (April 21, 2020) <https://www.pewresearch.org/global/2020/04/21/u-s-views-of-china-increasingly-negative-amid-coronavirus-outbreak/> (검색일: 2020.05.18.).

Dotson, John, “The CCP’s New Leading Small Group for Countering the Coronavirus Epidemic—and the Mysterious Absence of Xi Jinping,” *China Brief* 20:3, 2020.

Economy, Elizabeth, “The Coronavirus Is a Stress Test for Xi Jinping: Can China Control an Epidemic From the Top Down?,” *Foreign Affairs* (Feb 10, 2020),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china/2020-02-10/coronavirus-stress-test-xi-jinping> (검색일: 2020.04.23.).

Friedman, Thomas L., *The Lexus and the Olive Tree: Understanding Globalization*, Farrar, Straus and Giroux, 2002

Harper, Justin, “Coronavirus: Missouri sues Chinese government over virus handling,” *BBC* (April 22, 2020), <https://www.bbc.com/news/business-52364797> (검색일: 2020.05.21.).

IMF, *World Economic Outlook Report 2019*,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 (검색일: 2020.05.18.).

Jamey, Keaten and Maria Cheng, AP “WHO Agrees to Independent Investigation of Coronavirus Response,” *TIME* (MAY 19, 2020), <https://time.com/5838232/who-coronavirus-china-inquiry/> (검색일: 2020.05.21.).

Jones, Sparck, “A Statistical Interpretation of Term Specificity and its Application in Retrieval,” *Journal of documentation*, 28.5. 1972.

Lam, Willy Wo-Lap, “How the Wuhan Epidemic Has Dented Xi Jinping’s Authority

- and Prestige,” *China Brief*, 20:3(Feb 13), 2020.
- Lau, Hien, et al., “The association between international and domestic air traffic and the coronavirus(COVID-19) outbreak,” *Journal of Microbiology, Immunology and Infection*, 2020. <https://doi.org/10.1016/j.jmii.2020.03.026> (검색일: 2020.05.07.).
- Lo, Alex, “Beijing loses face with ‘face-mask diplomacy,” South China Morning Post, <https://www.scmp.com/comment/opinion/article/3081294/beijing-loses-face-face-mask-diplomacy> (검색일: 2020.05.10.).
- Madan, Tavin, “China’s Neighbors Face a Belligerent Post-Pandemic Beijing,” *Foreign Policy*, (April 29, 2020) <https://foreignpolicy.com/2020/04/29/china-southeast-asia-coronavirus-pandemic-india-pakistan/> (검색일: 2020.05.15.).
- Mattingly, Daniel, et al, “Xi Jinping May Lose Control of the Coronavirus Story,” *Foreign Policy*, (April 13, 2020) <https://foreignpolicy.com/category/chinafile/> (검색일: 2020.04.23.).
- Mead, W. Russell, “China Is the Real Sick Man of Asia,” *Wall Street Journal*, (Feb 3, 2020) <https://www.wsj.com/articles/china-is-the-real-sick-man-of-asia-11580773677> (검색일: 2020.04.08.).
- Pei, Minxin, “China’s Coming Upheaval: Competition, the Coronavirus, and the Weakness of Xi Jinping,” *Foreign Affair* May/June 2020
- Reichenberger, Ina, “Digital Nomads: A Quest for Holistic Freedom in Work and Leisure,” *Annals of Leisure Research* 21.3, 2018.
- Reuters, “Exclusive: Internal Chinese report warns Beijing faces Tiananmen-like global backlash over virus,” *Reuters*, (May 4, 2020) <https://www.reuters.com> (검색일: 2020.05.15.).
- Richards, Greg and Julie Wilson, eds, *The Global Nomad: Backpacker Travel in Theory and Practice*. Channel View Publications, 2004.
- Rosenberger, Laura, “China’s Coronavirus Information Offensive: Beijing Is Using New Methods to Spin the Coronavirus Pandemic to Its Advantage,” *Foreign*

- Affairs*, (April 22, 2020),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china/2020-04-22/chinas-coronavirus-information-offensive> (검색일: 2020.05.07.).
- Rosenthal, Uriel, Paul T. Hart, and Alexander Kouzmin, "The bureau-politics of crisis management," *Public Administration* 69,2, 1991.
- Ruiz, Estrada, et. al., "Globalization and Pandemics: The Case of COVID-19," Available at SSRN 3560681 (Mar 26, 2020), [https://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3560681](https://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3560681) (검색일: 2020.05.10).
- Saich, Tony, "Tony Saich on China's Leadership during the COVID-19 Outbreak," *The Harvard Gazette*, (March 16, 2020) <https://news.harvard.edu/gazette/story/newsplus/chinas-leadership-during-the-covid-19-outbreak/> (검색일: 2020.05.20.).
- Selden, Mark, *The political economy of Chinese development*, ME Sharpe, 1993.
- Shambaugh, David, *China Goes Global: The Partial Powe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http://hdr.undp.org/en/content/human-development-report-1994>: (검색일: 2020.05.03.).
- Wang, Chi, "How China is losing the world's trust following its cover-up of the coronavirus crisis," *South China Morning Post* (April 13, 2020) <https://www.scmp.com/comment/opinion/article/3079417/how-china-losing-worlds-trust-following-its-cover-coronavirus> (검색일: 2020.05.09.).
- Wang, Jiaoe, Haoran Yang and Han Wang, "The Evolution of China's International Aviation Markets from a Policy Perspective on Air Passenger Flows," *Sustainability* 11:13, 2019.
- White House, "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hite House* (May 26, 2020)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0/05/U.S.-Strategic-Approach-to-The-Peoples-Republic-of-China-Report-5.20.20.pdf> (검색일: 2020.05.25.).
- Williams, P. Maynard, *Crisis management: Confrontation and Diplomacy in the*

- Nuclear Age*, New York: Wiley, 1976.
- Zhang, Kevin H., ed. *China as the world factory*. New York, NY: Routledge, 2006.
- Zhang, Yun-tao et al., "An Improved TF-IDF Approach for Text Classification," *Journal of Zhejiang University-Science* 6.1, 2005.
- Zhu, Zhiqun, "Interpreting China's 'Wolf-Warrior Diplomacy'," *The Diplomat*, (May 15, 2020) <https://thediplomat.com/2020/05/interpreting-chinas-wolf-warrior-diplomacy/> (검색일: 2020.05.19.).
- Zweig, David, *Internationalizing China: Domestic Interests and Global Linkages*, Cornell University Press, 2002.

## The Crisis Management Politics of the CCP: Political Logic in Response to ‘COVID-19’

Seo Sang Min (Kookmin University CIRC,  
HK Research Professor)

### Abstract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has managed the response of Corona 19 in terms of political security.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has tried to secure its most security value, ‘political security’. This is why the ‘political security’ guardians of the ‘law and security sector’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were forced to appear in the front of the crisis response during the ‘Corona 19’ prevention process. Second, President Xi Jinping put in the Wuhan area of the People’s Liberation Army or conducted ‘public warfare’ through the political elite of ‘law and public security’.

China's diplomatic response was much more politically aggressive. On March 10, 2020, around the time when President Xi Jinping declared China's “Successful Anti-Covid19” in China, the words used by Chinese diplomatic spokesmen changed at all. Since March 10, Chinese diplomatic spokesman's remarks have been tougher and more offensive, and were “warrior wolves” fighting at the forefront of battles related to the responsibility of the Western world.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regular foreign press conference” data of the Chines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e Chines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has been stubborn about the responsibility issues raised by the West and the United States against China from February to April, On



the other hand, China tried to avoid the isola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y foreign propaganda activities through diplomatic friendly speech along with material support for some countries including Africa.

### Key words

COVID19, CCP's Crisis Response, Xi Jinping Leadership, Crisis Management of China, CCP's Political Security, MOFA' Press Conference, Topic Modeling Analysis